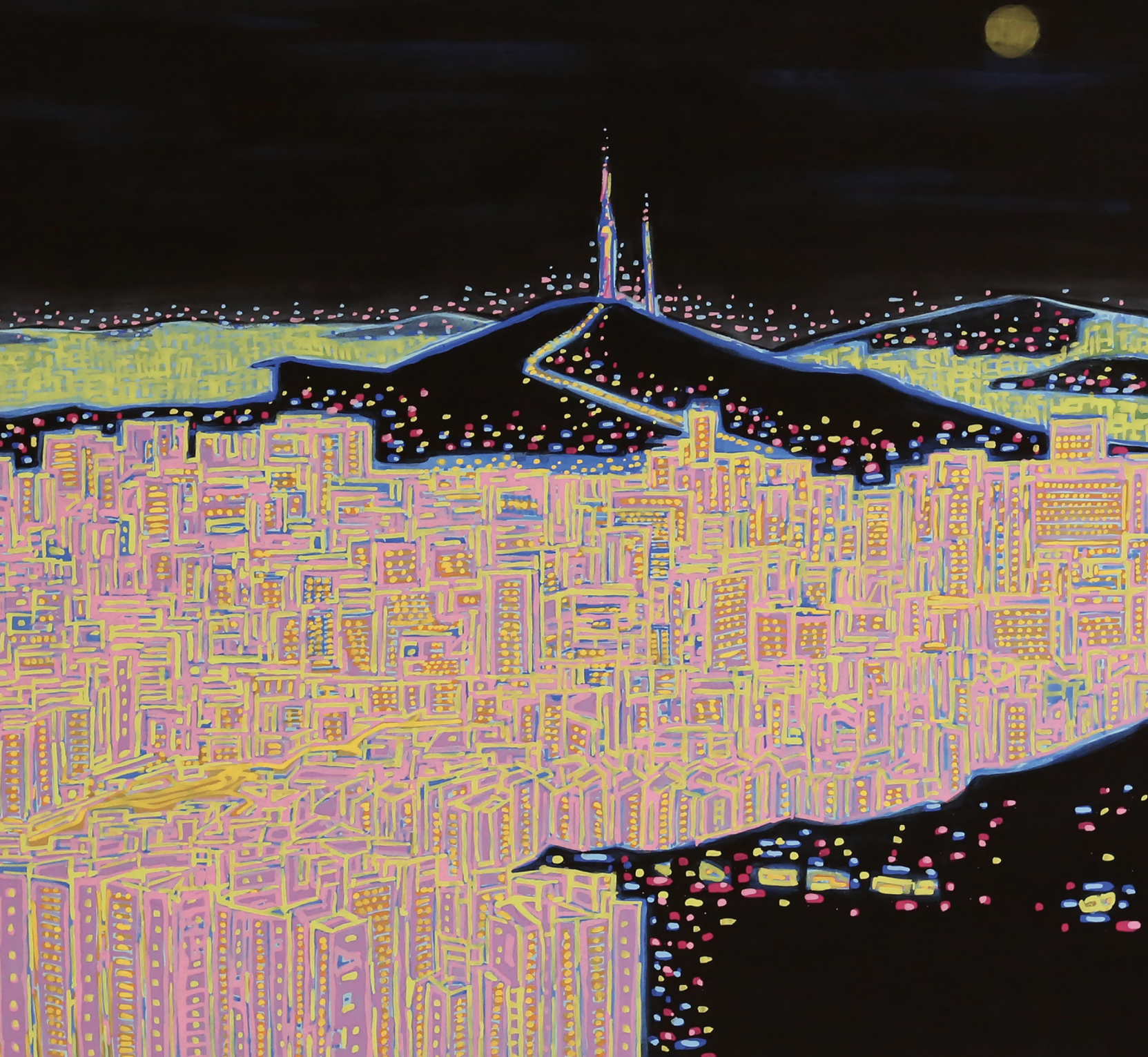


12. 2차 + 0
1차 2



전동민

이달의 표지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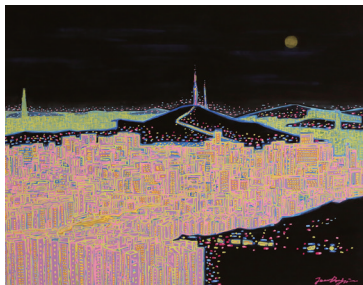


전동민은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한국화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9년 서울문화재단 잠실창작스튜디오의 10기 입주작가로 활동했고, 2020년에도 입주작가로 선정돼 활동 중이다. <잠실창작스튜디오 10기 입주작가 기획전 ‘무무(mumu)’>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2019), <예술에 U+5G를 더하다>(공덕역 6호선 U+5G갤러리, 2019) 등의 그룹전에 참여했고 <빛 그리고 희망>(BT갤러리, 2020), <안녕? SEOUL! 야경 이야기>(갤러리 두, 2019) 등의 개인전을 열었다. 대한민국 인재부문 대통령상, 조선대학교 공로상 등을 수상했다.

표지 작품

<서울 야경>

한지 위에 채색 | 80×100cm | 2017



사람들은 야경을 보고 싶을 때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높이 올라갈수록 늘어나는 인내의 시간만큼 우리는 더욱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다. 낮에 보는 도시의 고층 건물들은 복잡하고 무질서한 모습이지만 밤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어둠과 불빛, 색채만이 남는다.

나는 걱정거리가 있을 때,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야경을 본다. 나에게 야경 속 어둠은 방향·괴로움·외로움의 시간으로, 불빛과 색채는 숨 막히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 다가온다. 거대한 우주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체를 한눈에 보는 느낌이기도 하다. 그래서 결국 내 눈에 비치는 야경은 인고의 시간이 끝난 후 시야에 들어오는 환희로 가득한 환상, 환영이나 마찬가지다. 빛과 어둠의 경계는 마치 삶의 희망과 생명의 역동성으로 가득 찬 도시와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우주의 대비처럼, 삶과 죽음의 경계처럼 보인다.

이전의 작업이 열상카메라를 통해 드러난 열을 사물의 내면으로 보고 그것을 그림으로 옮기는 일의 반복이었다면, 신작에서는 도시가 품은 수많은 사람, 사물들의 색채가 생명력을 발하는 순간을 표현하고자 했다. 역동적인 빛의 대비가 더욱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형광 물감에 축광 도료를 추가해 작업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재료는 전경과 후경의 경계를 더욱 모호하게 보이도록 하며, 프레임 안의 구성 요소들이 조화롭게 표현되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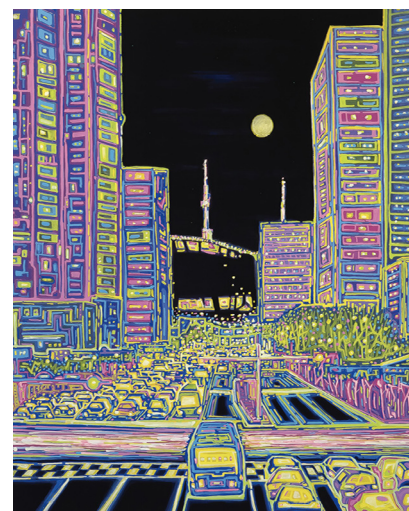
〈광화문 야경〉

한지 위에 혼합재료, 채색 | 112×195.5cm | 2019



〈서울 야경〉

한지 위에 혼합재료, 채색 | 112×391cm | 2019



〈안국동에서 바라본 남산타워 야경〉

한지 위에 혼합재료, 채색 | 100×80cm | 2019

CONTENTS

2020 09 VOL. 163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김중휘
편집 총괄 이규승
기획·편집 전주호, 오니트(주)
객원 편집위원 전민정
사진·디자인 (재)서울문화재단, 오니트(주)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66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웹진 www.sfac.or.kr/magazine
발행일 2020년 8월 31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01 커버스토리

이달의 표지 작가 전동민

테마 토크

2020 서커스 & 거리예술축제 미리 보기

06 칼럼

언택트 시대, 예술의 지속성과
본질을 고민하며 진행되는 축제의 의미

08 리포트 1

2020 서울 서커스 페스티벌 <서커스 카바레> &
서커스 시즌 프로그램 <서커스 카라반>

12 리포트 2

<서울거리예술축제 2020> & <거리예술 카라반>

16 서커스 & 거리예술축제 지도

한눈에 보는 서커스 & 거리예술축제

사람과 사람

18 문화인

지휘자 금난새

22 작가의 방

우희서 작가·임선이 작가

24 아트서울 기부투게더

서울문화재단과 (주)한성자동차의 공공예술 프로젝트



날갯짓(서커스 디 랩)

26 서울 찰나

28 진실 혹은 대답

코로나19 이후, 예술인의 복지와 사회보장

이슈 & 토픽

34 쟁점

‘오토픽션’과 사생활 침해

36 화제

남산예술센터 2020 시즌 프로그램
〈남산예술센터 대부흥성회〉 연습 현장

공간, 공감

38 공간

공유주택 응두동집

40 공감 1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과 연극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

42 공감 2

전시 〈새 보물 납시었네, 신국보보물전 2017-2019〉와
〈시대를 보는 눈: 한국근현대미술〉

44 공감 3

책 〈화가들의 정원〉과 〈서울을 걷다〉



SOUL OF SEOUL



46 이경자의 서울 반세기, 공간을 더듬다 22

1980년대의 마지막 경험, 유치장

48 김송희의 썰(說)

여행 제한 시대의 여행 콘텐츠

50 류태형의 음악 정원

〈2020 교향악축제 스페셜〉 리뷰

52 최재훈의 씨니컬(Cine_Col: Cinema Column)

김의석 감독의 〈죄 많은 소녀〉

WEBZINE+

56 웹진 [비유]

동화, 세상을 넓히다

58 웹진 [연극in]

창작집단 여기에 있다 〈SPACE: 연극〉

60 웹진 [춤:in]

천하제일탈공작소(이주원+허창렬)

62 9월의 서울문화매뉴얼

68 편집 후기







코로나 시대의 축제, 거리에서 거리 두기

2020 서커스 & 거리예술축제 미리 보기

본디 축제는 평범한 일상을 낮설게 하는 일탈이었다.

처음 겪는 낯선 일상이 익숙해진 2020년의 축제는 어떤 모습일까.

서울문화재단은 연기·변경·축소를 거쳐 취소될지도 모르는 축제를
조심조심 마음 졸이며 준비하고 있다.

차 안에서 안전하게 즐기는 서커스, 대형 튜브에 혼자 앉아서 보는 공연,
전에 없던 전염병 시대가 만들어낼 새로운 거리 축제의 풍경을
미리 한번 그려보자.

그럼에도 우리는 '최선(最善)'의 축제를 준비한다

언택트 시대, 예술의 지속성과
본질을 고민하며 진행되는 축제의 의미

〈서커스 카바레〉와 〈서울거리예술축제 2020〉이
9월~10월 초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이 불안한 시절, 축제가 준비하는 것은 '위로'다.
절망을 풀어내고 희망을 연결하는 일이다.

“무기 없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간단해. 독방에 가둬놓는 거야”
소설 《피터팬 죽이기》에서 작가 김주희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다.
이른바 단절, 혹 그로 인한 외로움이란 것은 실로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지닌다. 코로나19 팬데믹,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악의 장마.
이 모두가 처음 투성이의, 낯설고 두려운 것이다.
누구나 처음 살아가는 생이라 서툴고 부족한 것이 많을진대,
난생처음 겪는 상황, 그 낯섦의 양상은 밝고 설레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두려운 것이며, 그것이 만들어낸 단절은 가뜩이나
외로운 삶을 더더욱 외롭게 만든다.
이미 코로나19로 침잠해 버린 일상은 오래고도 지루한 비,
축축하고 꿈꿈한 날씨로 그 무거움의 질량을 가중한다.
기록적인 폭우는 차치하더라도 온난화, 기상이변, 해충 등
재앙이 연상되는 온갖 단어들이 빼곡히 들어찬 느낌이다.
다행은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이고, 불행은 시간이 흘러가야 한다는
거리에 아직 흥건하게 고여 있는 불안과 불편의 시간에 감히
축제라는 걸 도모하다니 어불성설이라 꾸짖어도 딱히 할 말은 없다.

코로나 시대, 축제를 계속하는 이유 그럼에도 8월의 허리를
지나가는 지금, 우리는 서커스 페스티벌 〈서커스 카바레〉
(10. 9~11)와 〈서울거리예술축제 2020〉(9. 18~10. 4)을 준비하고
있다. 〈서커스 카바레〉의 경우, 당초 5월에 예정됐던 것을 10월로
미룬 것이며, 〈서울거리예술축제〉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총 4일간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도심 주요 광장에서 개최하려던 것을,
9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총 17일간 종로, 을지로 등 도심 내
소규모 공간과 골목에서 시기와 장소를 분산해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 예매와 거리두기 관람, 현장 통제, 전자출입명부 관리,
긴급연락체계 구축 등 방역을 위한 단단하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최근 적극 활용되고 있는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한다. 'Post 코로나'에 앞서 'With 코로나'를 준비하는 것이다.
사실 지금껏 우리가 펼쳐온 축제는 여타 지역 관광 축제처럼
대형 이벤트와 같은 현대적 축제 문법을 빈번히 쓰지 않았다.
예술, 그중에서도 거리예술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다.
“그 무엇이 예술이라면,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아울러 모든 사람을 위한 것 또한 예술이 아니다.” 라고 한



작곡가 쇤베르크의 일성처럼, 적절한 불편을 만드는 ‘예술’과 시민 참여뿐 아니라 도시 브랜드 창출이라는 다소 이율배반적인 목적을 동시에 수행해야만 했다. 그런 사유로 예술로서의 가치와 대중적 기호에도 부합하는 것이 공공축제로서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했다. 자칫 축제성, 시민 참여를 배제한 채 오직 예술가에 의한, 예술만을 위한 축제를 경계해야 했음은 물론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언택트 방안을 구현해야 하는 이번 축제는 ‘제한적 시민 참여’라는 난제를 떠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영화 〈인터스텔라〉의 마지막 대사처럼 삶을 흔드는 속수무책의 무엇으로부터는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지만. 그렇다면 그에 앞서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 서보자. 우리는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 축제, 혹 예술이란 것을 지속해야만 하는 것일까? 우선 축제(祝祭, festival)는 개인 또는 집단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 혹은 시간을 기념하는 일종의 의식이며, 때로 사회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기도 했다. 또한 오늘날에 와서는 문화산업으로서의 경제 가치와 함께 참여를 통한 시민 놀이문화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일탈’과 연결되는 축제란 것은 ‘일상’과 이율배반적 양상을 띠며 집단성과 현장성을 주된 속성으로 하는 까닭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 질병이 향후 지속된다면 어느덧 일상의 풍경에서 차츰 지워져 버릴지 모른다. 그렇기에 더욱 다양한 대안이 제안되어야 하며, ‘Post 코로나’ 뿐 아니라 ‘With 코로나’의 옷을 입힐 수 있는 새로운 축제의 전형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축제는 ‘위로’다. 〈걱정말아요 그대〉〈한숨〉〈오르막길〉 등등 사람들의 고되고 껍적한 삶을 위로하는 음악이 자주 소환되고 있는 것처럼, 세상 모든 강제적 단절은 외로움·그리움과 뒤엉켜 문학과 음악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 형태로 사람들의 마음을 토닥였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바꾸는 것이 삶을 대하는 지혜일 수 있듯 그렇게 절망으로 갇히고 닫혔던 마음을 풀어내 있고, 희망을 직조하는 것. 그것이 예술이며 축제 아닐까. 외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매년 여름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개최되는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은 1947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해진 영국의 문화 부흥을 이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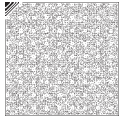
‘인간 정신을 꽃피우는 기반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작됐으며, 세계 3대 축제의 하나로 불리는 ‘삿포로 눈축제’ 또한, 패전의 아픔에서 삿포로 시민을 위로하고, 춥고 긴 겨울을 즐겁게 보내자는 의도로 1950년 시작됐다. 특히 일본의 3대 마쓰리(축제) 중 하나이며 대표적인 여름축제로 손꼽히는 후쿠오카의 ‘하카타 기온 아마카사’ 축제는 과거 한 승려가 당시 이 지역을 휩쓸던 역병을 막기 위한 의식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땀과 눈물을 기억하는 최선의 축제를 위해 또 다른 관점에서 축제의 가치는 ‘생존’이다. 모두가 어려운 시대라고는 하나 고통의 강도는 각기 조금씩 다른 것이 자본주의의 냉혹한 일면이기도 하다. 지금 예술가들은 예술이라는 본업에 몸담기보다 택배기사, 대리운전 등으로 더욱 절실히 그들의 생존을 항변하고 있으며, 축제기획자, 스태프 등 축제 산업 종사자 또한 극한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영화 〈덩케르크〉에서 말하듯 “생존이 곧 승리”인 시대. 이러한 예술과 예술가들의 생존을 위해 축제는 그 자체로 예술 현장을 읽고 압축한 지원일 수 있다. 최근 뮤지컬 프로듀서 8인이 뮤지컬 종사자들을 돕기 위해 〈쇼 머스트 고 온〉이란 뮤지컬 갈라를 준비했다는 소식이 유독 반가운 이유도 거기에 있다. ‘선(善)’은 올바르게 착함을, ‘최선(最善)’은 ‘가장 좋고 훌륭함’을 이른다. 코로나19의 시대, 축제는 ‘최고(最高)’가 아닌 ‘최선(最善)’이어야 한다. 질병을 ‘치료’할 순 없어도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있어야 하며, 비를 멈추게 할 순 없어도 누군가에게 ‘위로’의 우산을 씌워주어야 한다. 축제는 그것을 위해 애써온 예술가들의 발걸음을 기록한 언어이며, 그들의 땀방울을 담아낸 그릇이다. 그것은 예술과 예술이 만나고 헤어지는 길목이며, 예술과 사람이 모여드는 마을인 것이다. 하여 축제의 성패, 혹 가치는 과거를 넘어서는 빛나는 무엇을 우뚝 세우는 것에 있지 않다. 비록 만석의 군중이 열광하지 않았다고 하여, 뜨거운 이슈를 터뜨리지 못했다 하여, 축제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어쩌면 ‘최고’였을지 모를 사람과 사람, 그들의 땀과 눈물이 거기에 있었으므로.

글 백승우_서울문화재단 문화시민본부장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축제의 일정이 변경,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철저해진 안전 속, 가까워진 서커스의 세계

2020 서울 서커스 페스티벌 <서커스 카바레> &
서커스 시즌 프로그램 <서커스 카라반>

중식되지 않은 코로나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이 시민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2020 서울 서커스 페스티벌
서커스 카바레

2020 서울 서커스 페스티벌 <서커스 카바레> 이야기 지난해

유난히 날이 좋았던 5월 초 3일간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린 2019 서울 서커스 페스티벌 <서커스 카바레>는 서커스를 관람하기 위해 찾아온 관객으로 가득 찼다. 전통연희부터 근대 서커스, 현대 서커스까지 각 시대의 모습을 담았던 서커스 축제는 7만여 명 관객의 마음속 깊이 서커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기에 충분했다. 그 감동의 시간을 다시 재현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축제를 준비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결국 축제를 5월에서 9월로 한 차례 연기했고, 지난 8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져 10월로 다시 한번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미치고 있어 초청 예정이었던 해외 공연단체 또한 올해 축제에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 국내외 상반기 축제는 대부분 취소되거나 하반기로

연기됐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중식되지 않은 채 우리 곁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중교통과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올해 <서커스 카바레>는 무엇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에 중점을 두고 안전한 축제를 만들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그렇다면 10월 9일(금)부터 11일(일)까지 3일간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리는 <서커스 카바레>는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으며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될까.

안전한 축제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시간. 드라이브 인

카바레!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공연과 축제 취소 통보로 예술가와 문화예술계 종사자는 심신이 극도로 지쳐 있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축제가 열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서커스 카바레>는 국내외 예술 단체 프로그램 기획·기술·운영·홍보 각 파트에서 머리를 맞대어 의견을 나누었고 그러면서 여러 변화를 거치게 됐다. 첫 번째로 취한 조치는 해외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해외 초청 공연을 취소한 것이다. 이후 축제 관람은 사전 예약을 한 관객만이 공연을 볼 수 있되 거리 두기 기준에 맞춰 평소 인원의 50%만 관람 가능하도록 객석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 8월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실내 50인 이하, 야외 100인 이하로 다시 한번 공연장별 인원을 조정하다가 마지막으로 축제를 방문한 이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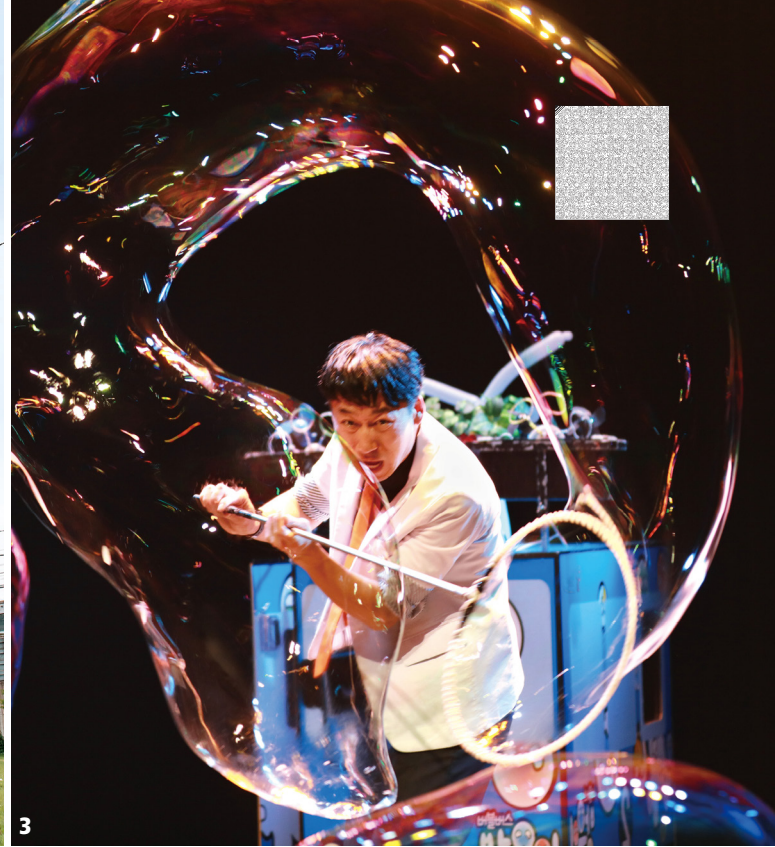
1

서로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안전한 나만의 객석이 있다면?’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밀집하지 않고 서로 간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나만의 객석이라면 안전하지 않을까?’ 이번 〈서커스 카바레〉에서는 사전 예약자가 온전히 자신만의 독특한 객석에서 서커스를 관람하게 된다. 바로 ‘드라이브 인 카바레’이다. 관객이 개인 차량에 탑승한 채로 공연을 관람하는 형태로 자동차 극장과 얼추 비슷하다. 공연은 패키지로 2작품씩 묶어 1일 4회차로 진행한다. 모든 공연은 100% 사전 온라인 예매를 통해 진행하며, 차량당 최대 3인까지 탑승해 관람할 수 있다. 한편 패키지로 묶인 2작품이 한 공간에서 연속적으로 공연해야 함에 따라 관객의 차량 이동이 어렵고, 한 작품이 끝나고 무대전환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또한 특별한 무대를 준비해 문제점을 해결했다. ‘프로젝트 날다’에서 지난 2019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의 서커스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돼 만든 작품 〈스카이 텐트〉의 구조물을 이용했다. 서커스 텐트 모양을 한 구조물이 크레인에 매달려 먼저 공연한 이동형 무대가 빠지면 다음 공연을 위한 자리로 들어오게 된다. 이 밖에도 축제 기간 중 관객 외 문화비축기지를 방문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를 수시로 진행할 수 있는 ‘스테이션’을 산책로에 설치해 운영한다. 관객뿐만 아니라 예술가를 포함한 모든 축제 스태프는 행사 당일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에 관한 교육과 발열 체크, 문진표 작성, 손 소독제 사용, 이동 동선 분리를 철저히 시행한다. 이렇듯 관객과 예술가의 공간은 분리하되 축제 현장에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내 서커스 집중 탐구하기! 이번 2020 서울 서커스 페스티벌 〈서커스 카바레〉는 전통연희, 근대 서커스 그리고 현대 서커스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국내 공연 10작품을 준비했다.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코사인 그래프〉〈조타:Steer〉〈잇츠 굿〉 3편의 작품이 첫선을 보인다. 지난 2019년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의 리서치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품들로 올해 연속 지원을 받아 제작 및 발표된 작품이다. 〈코사인 그래프〉(64j(줄))는 세상을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코사인곡선에 빗대어 불확실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슬랙와이어를 통해 그들만의 재치와 유머로 표현한 힐링 공연이다. 〈조타:Steer〉(화이트 큐브 프로젝트)는 단체에서 제작한 차이니스 폴을 변형한 구조물과 뮤지컬 요소가 들어간 공연으로,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인생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상주형 지원 단체인 봉앤줄의 작품 〈잇츠 굿〉은 6m 높이, 24m 길이의 하이와이어 위에서 퍼포머가 삶에 대한 위안과 소망을 하늘로 날려 보내는 이야기다. 이 밖에도 국내 다수의 거리예술축제 및 야외 공연 축제에서 선보인 현대 서커스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 1 〈Pulse:맥〉(프로젝트 루미너리)
- 2 〈잇츠 굿〉(봉앤줄)
- 3 〈경상도 비눗방울〉(팀 클라운)



탱고의 선율과 비올라 연주, 하늘 위에서 펼쳐지는 에어리얼 기예의 삼중주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Pulse;맥> (프로젝트 루미너리), 수직 구조 속에서 중력을 거스르는 세 남자의 이야기를 변형 차이니스 폴을 통해 보여주는 <수직>(포스), 편지와 소포를 배달하는 집배원 아저씨의 일화를 담은 <우체부> (왈츠매직), 나비를 닮은 디아블로를 통해 연인의 만남과 이별 과정을 그린 <날갯짓>(서커스 디 랩)이 있다. 또한 전통연희 작품인 <대단한 놀이판: 오늘의 광대>(예인집단 아라한), 근대 서커스를 현대에 맞춰 그 시절을 재현한 <광대의 꿈>(스토리 서커스)이 있다. 특히 매일 밤 8시에는 약 75분 동안 문화비축기지 밤하늘을 화려한 서커스로 가득 채울 예정이다. <잇츠 굿>과 화려한 조명 속 밴드의 라이브 연주와 불(꽃)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SKY 밴드> (프로젝트 날다+예술불꽃 화(花,火)랑)가 그 주인공이다. 두 작품은 3일 동안 특별한 손님들을 초대한다. 바로 코로나19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이다. 그들의 지친 심신을 위로하기 위해 관람 가능 차량 대수를 별도로 배정해 운영한다. 공연 외에도 창작그룹 노니의 <거리예술×서커스 이동전시>를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다. 창작그룹 노니가 2018년부터 진행한 거리예술과 서커스의 국내외 종사자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사운드, 이미지, 텍스트, 현장 기록 등의 자료다.



서커스 시즌 프로그램 서커스 카라반

서커스 카바레는 끝나도 서커스는 계속됩니다. 서커스 시즌 프로그램 <서커스 카라반> 지난해 처음으로 선보인 서커스 시즌 프로그램인 <서커스 시즌제>는 올해부터 <서커스 카라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운영된다. <서커스 카바레>가 끝난 9월 둘째 주부터 10월 첫째 주까지 매주 주말 및 공휴일에 문화비축기지와 노들섬에서 서커스 공연을 선보인다. 문화비축기지에서 진행되는 <서커스 카라반>의 경우 앞서 진행한 <서커스 카바레>와 같은 형태로 관객 모두 차량을 이용해 관람하며 매주 월요일 해당 주의 공연 정보를 오픈할 예정이다. 노들섬의 경우 객석 간 거리를 두고 제한된 인원만 관람할 수 있다. <서커스 카바레>에서 선보인 작품을 포함해 총 15개의 작품을 4주간 만나볼 수 있다. 참여 작품으로는 <슈뢰딩거의 고양이>(64J(줄)), <나홀로 서커스>(마린보이), <가라앉거나 해엄치거나>(공연창작집단 사람), <재주 많은 아저씨의 50가지 서커스 쇼>(예술인), <경상도 비눗방울>(팀 클라운) 등이 있다.

글 이현정_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홍보PD 사진 제공 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축제의 일정이 변경,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울 거리, 예술이 되다

〈서울거리예술축제 2020〉 & 〈거리예술 카라반〉

〈서울거리예술축제 2020〉과 ‘거리예술 시즌제’에서
올해부터 〈거리예술 카라반〉으로 바뀐 두 거리예술 축제가
9월과 10월에 진행된다. 이번 축제는 낯선 일상을 마주한 우리에게
축제의 본질을 알려주는 특별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축제의 열기는 번지되 전염병은 번지지 않길 바라며...



서울시 대표 거리예술축제

서울거리예술축제 2020

‘낯선, 일상’ <서울거리예술축제 2020> 낯선, 일상.

〈서울거리예술축제 2020〉의 주제다. 올해 서울거리예술축제는 9월 18일(금)부터 10월 4일(일)까지 서울 도심 일원(종로, 을지로 등)에서 열린다. 기간은 길어지고, 장소는 확장됐다. 안전한 축제를 위해 내린 결정이다.

일상의 변화, 축제의 변화 2020년은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한 해다. 외출할 때 꼭 챙겨야 하는 마스크,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되는 일터와 교실, 쉽지 않은 외출, 올해는 기억할 수 없는 해외여행 등 일상이 낯설어졌다. 이런 변화로 일상은 불편해졌고, 미래는 불안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낯설어졌기 때문에 일상을 되돌아보게 됐고, 주변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게 됐다. 두 가지 면을 가진 ‘낯선, 일상’은 거리예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거리예술은 일상의 공간을 예술로 낯설게 만들어 그 시간을 특별하게 한다. 올해 서울거리예술축제는 일상을 낯설게 다시 보고 이를 공감하며 거리예술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그럼에도 축제는 계속된다 코로나19로 올 초부터 많은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축제도 예외일 순 없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축제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야 했고, 축제에 변화를 줘야 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축제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우리는 왜 서울거리예술축제를 하려 하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다. ‘거리예술’은 생활 공간을 무대로 바꾼다. 일상과 예술 사이의 벽을 허물고 무심히 지나던 장소를 새롭게 만든다.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 공간을 누리고 기억을 나눈다. 거리예술은 ‘일상의 공간에서 예술로 연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축제’는 정해진 시간에 축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밀도 있게 공유하는 시간이다. 이것을 지키면서 축제의 방향성을 찾는다면 안전하게 축제를 진행하는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4일이던 일정을 17일로 늘리고, 장소는 기존 서울광장·청계광장에서 그 주변으로 확대했다. 종로, 을지로와 같은 인근 지역 일대와 성곽이 보이는 창신동, 한강에 있는 선유도 등 다양한 장소에서 약 3주 동안 서울의 공간을 재발견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1



2



3

축제의 도시 탐색 ①

서울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종로와 을지로 서울은 긴 역사만큼 공간마다 여러 이야기가 담긴 곳이다. 새로운 장소를 찾으면서 우선 고민한 곳은 서울의 지난 시간과 현재가 공존하는 '종로와 을지로'다. 역사적으로도 줄곧 서울의 중심이었던 이곳은 광복 이후 가장 먼저 개발된 곳이기도 하다. 그중에서도 세운-대림-인현-진양상가로 이어지는 중구 일원은 바쁘게 살아온 생활의 터전에 켜켜이 시간의 때가 묻어 있는 곳이자, 오늘날 도시의 모순을 드러내는 장소다. 200L 쓰레기봉투를 통해 인간의 쓸모와 노인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내는 <200 LITTER>(로맨틱용광로), 커다란 짐을 짊어진 배우들의 여정에서 도시인들 삶의 무게를 들춰내는 <지게: 쏜>(아이모멘트), 지금은 존재하지만, 미래에는 사라질 것들에 대한 엉뚱한 상상을 관객과 소통하며 그려보는 <미래, 도시>(우주마인드프로젝트), 전염병 시대에 한없이 연약하고 위태로운 우리 스스로에게 위안과 치유의 경험을 건네는 <셀프 마사지사>(비주얼씨어터 꽃) 등 우리의 현재 모습과 마주할 수 있는 주제를 담은 공연을 주로 선보인다.

축제의 도시 탐색 ②

주민들 삶의 소리가 들리는 창신동 골목 깎아지른 듯한 화강암 채석장 절벽 풍경이 인상적인 '창신동'은 동대문시장과 가까워 봉채산업이 발달해 온 곳으로, 높다란 언덕 사이에 돌고 도는 재봉틀 소리와 원단을 실은 오토바이 소리가 아직 골목을 채우고 있다. 인터뷰를 통해 주민들의 삶과 소리를 기록하고 세대별 무용수들의 움직임으로 창신동 곳곳을 여행하는 <아직, 있다!>(프로젝트 외), 깎여 나간 돌산 아래 사람들의 환희와 비애를 노래에 담아내는 <돌맹이 캔디>(제너럴콘서트)를 비롯해, 종로와 낙산을 중심으로 서울시민의 이야기를 담은 거리 콘서트 <서울살이>(음악그룹 더툰) 등 동네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가까이에서 담아낸 공연을 만날 수 있다.

- 1 <아직, 있다!>(프로젝트 외)
- 2 <지게: 쏜>(아이모멘트)
- 3 <200 LITTER>(로맨틱용광로)

축제의 도시 탐색 ③

서울의 숨겨진 공간 캠프 선교사 주택 이번 축제를 통해 시민에게 선보이는 사직동 ‘캠프 선교사 주택’은 구한말 서울에 파견된 선교사 조지핀 캠프가 살던 주택으로 석재 건축물과 넓은 정원이 인상적인 곳이다. 여기에서는 ‘안녕! 우리집’을 소주제로 극단 사다리의 〈내 친구 양말목〉〈고재경 마임〉(마임공작소 판), 테이블 오브제극 〈무니의 문〉(작은극장H), 1인 관객을 위한 관객 참여형 팝업북 연극 〈문몬 읽기〉(정결) 등 인형극·무용·서커스 등 다채로운 장르와 형식의 가족 대상 공연이 관객을 맞이한다.

축제의 도시 탐색 ④

휴식과 쉼의 공간 선유도 정수시설이었던 건물을 자연과 어우러진 모습으로 개방해 시민들의 쉼터가 돼주는 ‘선유도’에서는 좀 더 편안하게 관객과 만날 수 있는 작품들이 채워진다. 일상의 기억을 담은 사물의 드로잉을 선유도 내 가설 갤러리에서 증강현실로 만날 수 있는 관객 참여형 드로잉 퍼포먼스 〈사물들의 우주〉(강제욱), 설 틈이 필요한 도심 속 우리에게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는 휴식과 쉼을 주는 〈도시별집〉(문화로 도도다)과 서커스 공연 두 편 〈잇츠 굿〉(봉앤줄), 〈아슬〉(포스)이 준비 중이다.

4 〈도시별집〉(문화로 도도다)

5 〈피켓라인〉(제너럴콘스트)

6 〈숨, 자장가〉(보이스씨어터룸MOM소리)_2020 거리예술 카라반



4

축제의 프로젝트

낮선 일상 속 변화한 서울광장의 모습 매년 북적이던 서울광장은 축제의 주제를 집약적으로 담은 기획제작 프로그램 〈84시간〉으로 전염병 시대에 축제가 제안하는 새로운 모습의 광장을 드러낸다. 서울광장 한가운데 세워진 집에서 4일 동안 살아가며 외부로부터 고립된 예술가는 새롭게 작동하는 질서를 경험하고, 단절되고 유예된 시간을 통해 생존을 위한 방법을 체득해 간다. 고립된 예술가의 모습을 통해 관객과 현시대에서의 생존,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새로운 방식의 비대면 해외 교류를 통한 공연 프로그램

물리적 초청이 어려운 시기에 비대면 방식으로 국내 공연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선보이는 새로운 제작 방식의 국제 교류 신작도 소개된다. 〈우리는 두려워한다, We Fear〉는 스페인의 조르디.DR과 에바.MF의 장소 특정형 작품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주제로 한 그들의 에피소드를 한국의 작가들(움직임·사운드·영상)과 발전시켜 죽음 이후의 ‘분해·해체·부패’에 대한 새로운 에피소드를 선보인다. 한국 작가들의 실연과 스페인 작가의 온라인 참여, 전시·설치가 특정 공간에서 함께 진행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가제)〉는 프랑스 극단 아르펑터가 한국을 리서치하던 중 발견한 서울의 기억과 장소성을 기반으로 용산역과 프랑스의 마르세유 역 사이를 넘나드는 물리적인 움직임 없는 여행을 제안하는 작품이다. 멀리 떨어져 있음이 어떻게 우리를 함께하게 만들고, 부재가 어떻게 우리를 더욱 존재하게 만드는지 질문을 던진다.

재난 이후, 거리예술의 방향성에 대한 예술가들의 고민이 담겨 있는 기획 공모 ‘아주 가까운 거리’의 다양한 프로젝트인 〈이미터〉(신현아), 〈우리 도시 좀 봐〉(Bruno & Loic), 〈그림자 산책〉(이이난), 〈표류백화점〉(허나영), 〈피켓라인〉(제너럴콘스트), 〈거리예술기록보관소〉(위워크인투) 역시 주목할 만한 올해 축제의 한 축이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일부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다. 상세 정보는 9월 초부터 서울거리예술축제 누리집(ssaf.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글 최성희_서울거리예술축제 추진단 홍보PD 사진 제공 서울문화재단



2020 거리예술 시즌 프로그램

거리예술 카라반

새로운 이름, <거리예술 카라반>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에서 6년 동안 진행해 온 '거리예술 시즌제'도 <서커스 카라반>과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거리예술 카라반>이라는 이름으로 개편해 이전보다 더 다양한 공간으로 시민들을 초대한다.

더 다양한 공간에서 시민들과 만나다 <거리예술 카라반>은 9월 둘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모든 주말과 공휴일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숲, 선유도공원 등 인근 공원과 서울시의 주요 재생시설 및 성곽시설인 '잘생졌다! 서울' 공간 중 평화문화진지, 돈의문 박물관 마을, 서울로7017에서 진행된다. 참가 작품은 공개 모집을 통해 예년보다 많은 5개의 신작

<나무위의 등지>(The Prayer), <빠리빠리 빠리릿!>(프로젝트 외), <아프리카, 어디까지 가봤니?>(아프리카댄스컴퍼니 따그), <우리가 진짜 대통령>(에스폴라 알레그리아), <제네스>(살거스)를 포함해 총 15개 작품을 선정했고, 서울문화재단 축제팀에서 주관해 서울시 대표 B-boy단 엠비크루와 협업으로 탄생한 신작 <마당>까지 총 16개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거리에서 거리 두기 코로나19 전염병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거리예술 카라반>은 예술가와 시민의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해 '거리 두기 관람'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공연장에 준비된 '방역 부스'를 찾아 문진 기록, 발열 체크, 손소독제 사용을 마친 후에 거리를 두고 설치한 대형 튜브에 앉거나 진행요원들의 안내에 따라 1m 이상 떨어져 공연을 관람하게 된다.

글 최호범_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사진 제공 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축제의 일정이 변경,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서커스 & 거리예술축제

어느 곳에서 어떤 축제가 열리는지 헛갈린다면

이 지도를 참고해 동선을 짜보자. 9월 둘째 주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문화비축기지와 노들섬에서 열리는 <서커스 카라반>을 즐긴 후,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리는 <서커스 카바레>를 즐겨보자.
9월 18일부터 10월 4일까지 도심 일원(종로, 을지로 등)에서 열리는
<서울거리예술축제 2020>도 잊지 말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축제의 일정이 변경,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울거리예술축제 2020>

200 LITTER | 지게: 끈 | 미래, 도시
셀프 마사지사 | 아직, 있다! | 돌멩이 캔디
서울살이 | 내 친구 양말목 | 고재경 마임
무니의 문 | 문몬 읽기 | 사물들의 우주
도시별집 | 잇츠굿 | 미술 | 84시간 등

● 누리집 ssaf.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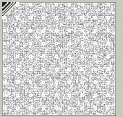
● 2020 서울 서커스 페스티벌 <서커스 카바레>

코사인 그래프 | 조타:Steer | 잇츠굿
Pulse:맥 | 수직 | 우체부 | 날갯짓
대단한 놀이판: 오늘의 광대 | 광대의 꿈 | SKY 밴드 등

● 서커스 시즌 프로그램 <서커스 카라반>

슈뢰딩거의 고양이 | 나홀로 서커스
가라앉거나 헤엄치거나 | 경상도 비눗방울
재주 많은 아저씨의 50가지 서커스 쇼 등

● 누리집 www.sfac.or.kr/artspace
artspace/streetArts_notice.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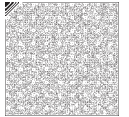


사람과 사람
문화인

마에스트로의 향해

지휘자 금난새





타고난 기질과 젊은 시절 경험은 금난새의 삶에 나침반이 됐다.
음악을 마주하는 그의 태도는 클래식을 성역이라 여기는 이들에게
잔잔한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끝없이 도전하는 금난새의 행보는 일흔을 넘어서도 멈추지 않는다.

1977년 카라얀 콩쿠르에 입상한 뒤, 프라하 방송교향악단, 도
이치 캄머오케스트라,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객원 지
휘자와 유러피안 마스터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를 지냈다. 이후 KBS교향악단의 지휘자로 본격적인 국내 활동
을 시작했다.

금난새의 삶은 한국 클래식계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도전의 연
속이었다. 그의 페르소나인 <해설이 있는 음악회>는 지치지 않
는 도전과 음악을 통해 세상과 호흡하는 자신만의 방식이 오롯
이 드러난 결과물이다. 이것은 금난새가 “음악을 위해 청중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청중이 있기에 음악이 존재한다”라는 믿음
으로 기획한 것으로, 클래식의 역사와 곡이 탄생한 배경 등을
설명하는 구조로 짜여 있다. 특히 6년간 진행한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에선 매년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
객석이 관객으로 가득 찼다. 지금도 그의 공연에서 9할은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내 삶은 도전의 연속

1992년, 금난새가 KBS교향악단을 그만두고 당시 열악한 상황
에 처한 수원시향을 맡은 일은 지금도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
다. 12년간 근무한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강행한 이
유는 소외된 오케스트라를 부흥하고, 더 많은 대중이 클래식 음
악을 즐길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있었다. ‘마라톤 음악회’를 기

획해 6시간 공연하는 대기록을 세웠고, 단돈 500만 원의 예산
으로 제작한 오페라가 전석(1,600석) 매진된 일도 있었다. 이렇
게 6년간 도전과 성공을 반복하며 수원시향의 위상을 드높였
으며 덕분에 수원시는 시민이 즐겨 찾는 클래식의 도시로 변모
하기도 했다.

혹자는 그의 선택과 결정을 돈키호테적인 행보에 비유한다. 그
의 이런 행보에 방점을 찍은 사건은 “왜 스스로 운영되는 오케
스트라는 없을까”란 고민을 하며 “안주하는 예술가는 성장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뉴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창단 당시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창단한 일이다. 이 단체는
1998년 창단된 ‘민간 벤처 오케스트라’로 정부와 지자체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케스트라의
뛰어난 실력, 그리고 음악이 사회와 호흡할 때 더욱 가치 있다
는 그의 믿음에 많은 기업이 힘을 보탰기 때문이다. 그는 매년
<제주 뮤직아일랜드 페스티벌>과 <맨해튼 체임버 뮤직 페스티벌>
을 개최해서 예술과 기업이 함께하는 상승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음악

포스코센터 로비에서 공연된 <포스코 재야음악회>, 도시에 비
해 상대적으로 클래식 공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울릉도(금난새
가 공연하기 전까지 울릉도에서 클래식 공연이 열린 적이 없다
한다)에서 개최된 <울릉도 음악회>, 서울 명동 거리에서 진행
된 <명동 야외 콘서트> 등. 이렇게 장소와 관행을 과감히 파괴
한 공연은, 민간 벤처 오케스트라를 이끌어온 그가, 예술이 생
존하는 시스템의 한계를 직시하고 대안을 찾는 모습을 비춘 거
울이기도 하다. 그리고 대안의 저변에는 음악을 매개로 사회와
호흡하며, 사회가 성장하는 데 음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타고난 기질과 젊은 시절 경험이 음악가로
서 삶의 이정표가 돼 그의 행보를 결정지었다.

“독일 유학 시절 가난한 유학생이었지만 가난을 피부로 느껴보
지 못했습니다. 독일 사회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베풀고 누구나 당당하게 살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사회였습니다. 젊은 시절 독일에서 보낸 6년의 시간은 제가 예술가로 살아가는 동력이자 창조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음악가니 음악으로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며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문 소양을 갖춘 1%의 청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99%의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는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그들과 함께하는 음악가로 오래도록 기억되고 싶습니다.”

‘농어촌희망오케스트라’와 ‘한국대학생연합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아 음악이 사회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을 실행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마사회에서 후원하는 농어촌희망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은 것은 이 프로그램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래식 교육을 접하기 힘든 청소년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이 음악을 통해 궁극적으로 삶에 대처하는 태도를 배울 것이라 생각했고, 그렇기에 이 활동이 제가 해오던 모든 도전을 아우를 만큼 중요한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로서의 면모도 보여줬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는 모교인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장으로 지내며 후학 양성에 힘을 쏟았다.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학부모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교장으로 받은 봉급은 학교에 기부하겠다는 다소 파격적인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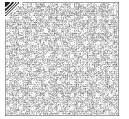
“좋은 음악이 좋은 사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저의 꿈 전부입니다.”

을 했는데, 독일 유학 시절 전액 무료로 수업을 받으며 지도교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경험이 그가 생각하는 교육과 교육자 모습의 이데아가 됐기 때문이다.

일흔 넘는 나이에 또 계속되는 질주

현재는 뉴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성남시립예술단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여전히 연간 100회 이상 공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금난새도 ‘온라인 공연’이란 대안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간의 수완이 증명되듯 특유의 긍정적인 생각과 반독이는 아이디어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난 6·7월에는 성남시향과 함께 ‘금난새의 오페라이야기 <비제 오페라 카르멘>’과 ‘제170회 정기연주회 <금난새의 뮤직드라마>’를 포털 사이트에서 무관객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기도 했다. 현장성을 중시하는 공연이다 보니 온라인을 통한 관람이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장소에 구애하지 않고 공연을 볼 수 있으니 파급력 면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간 공연장과의 거리를 이유로 금난새의 공연을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동시 접속자 수가 수천 명에 육박했다. 덕분에 성남시향이 대외적으로 홍보되는 효과도 있었다.

9월 13일에 진행될 <제7회 서울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 폐막 공연의 지휘자로도 나설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서울생활예술오케스트라축제의 부대 행사들이 취소돼 폐막 공연을 지휘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됐다. 폐막 공연은 전문 오케스트라(뉴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마스터클래스(교육)에 참가해



실력을 향상시킨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뉴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협연하는 공연으로, 총 3곡(비제 <Carmen Suite(카르멘모음곡)> No.1, No.2 중, 임궁수 <강 건너 봄이 오듯>, 비제 <L'Arlésienne No.2: 4th Mv, Farandole(아를의 여인 제2모음곡 중 파랑돌)>))이 연주될 예정이었다. 금난새의 친근한 해설이 더해져 감동과 재미가 배가됐을 폐막 공연이 취소된 것이 아쉽지만 하다.

올해 11월에는 '금난새 뮤직센터'가 완공된다. 부산시와 고려제강이 문화재사업의 일환으로 탈바꿈시킨 복합문화공간인 F1963의 유희 부지에 지어지는 4층짜리 건물로, 건물의 일부가 금난새 뮤직센터로 활용된다. 20여 년 전 포스코센터 로비에서 그의 공연을 우연히 본 고려제강 홍영철 회장과는 '클래식

을 통한 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런 그가 조력자로 나섰기에 금난새 뮤직센터 건립이 실현된 것이다. 금난새는 이곳을 청소년 오케스트라 아카데미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또한 음악감독으로 활동하는 것이니 다른 지휘자와도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도 생각하고 있다.

지휘자로, 경영자로, 교육자로 다양한 도전에 성공해 온 그는 여전히 이렇게 쉬지 않고 달리고 있다.

“좋은 음악이 좋은 사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저의 꿈 전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믿음을 실천에 옮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글 전주호_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사진 공간느루

공사장도 당당한 전시장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한창 철거가 진행 중인 대학로 한복판에 있는 옛 동숭아트센터. 내년 6월 개관을 목표로 리모델링에 속도를 가하는 이곳의 가림막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우희서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제작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그의 앞길에 넘어야 할 문턱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았다. “전시를 하려고 대관 신청을 해도 번번이 떨어지더라고요.” 경력이 부족한 신진 작가의 한계였을까.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전시장 정보를 같은 고민을 가진 동료들과 공유하기 위해 〈이 벽 뚫어도 돼요?〉를 기획했다. 더불어 대중으로부터 외면받은 순수미술을 위해 기획한 〈@개찰구〉는 좀 더 많은 작품이 팔리길 바라는 작가의 마음을 담은 프로젝트다.

우 작가는 자신에게 닥쳐온 역경을 한탄하기보단 스스로 개척하는 도전을 선택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그에겐 또 하나의 도전 과제였다. 기성 작가들이 멋진 화이트 큐브(White Cube)에서 전시하는 것을 빗대 혼잡한 공사장에서라도 작품이 공개되면 어떨까 고민한 실험적 아트 프로젝트인 〈화이트 배너〉(~6월 30일)를 준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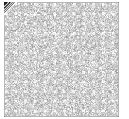
“전시를 돋보이게 하는 ‘화이트’만 갖춘다면 어디서 전시를 여는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년이면 예술가들을 위한 ‘예술청’으로 탈바꿈하는 이곳의 의미를 되살려 7월부터는 2주마다 다른 작가의 아이디어가 연속해서 이어졌다. 프로젝트 시작을 알린 우 작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방역에 사력을 다하는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섬데이 이즈 투데이(Someday is Today)’를 공개했다. 가림막엔 방진복을 입은 사람이 검은 천을 뚫고 나오는 모습이 나오는데, 작품 속 사진이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들려줬다.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가 언젠가는 종식되겠죠? 그 미래의 ‘언젠가’가 하루빨리 ‘오늘’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희서

작가



우희서는 건국대학교 현대미술학과를 졸업했다. 기획 프로그램으로는 〈이 벽 뚫어도 돼요?〉(2020), 〈이야기청〉(2020), 〈화이트 배너〉(2020년 1~11월), 〈@개찰구〉(2019년 11~12월), 〈A/S 성북진경점〉(2019년 10월), 〈공연 For time-poor〉(2018년 6~12월)가 있으며, 그룹 전시로는 〈영, 바라보다〉(2018년 8월, 씨포먼트갤러리)가 있다.



“쇠 굵 달린 신발을 벗어버리고 가벼운 걸음을 시도해 보고 싶다”

중견작가 임선이 씨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전시 〈왼손의 움직임: 에필로그〉(~7월 9일, 금천예술공장)를 연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다. 어느 날 문득 머릿속에 ‘반백 살에 쇠 표를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그이기에, 쉬지 않고 달려온 자신을 되돌아보고 싶다는 고백으로 들린다.

그는 이번 전시를 “오른손의 수고를 잠시 접고, 왼손이 갖는 어설피고 낯선 중얼거림”이라 비유했다. 한 몸에 존재하는 왼손과 오른손의 차이는 무엇일까. 오른손잡이인 그에게 왼손의 어색함을 표현한 것이냐 묻자 이렇게 답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작업과 대상에서 벗어나 잠시 시선을 옮겨 낯설게 보는 거예요.”

이번 전시는 동료 작가 8명과 함께 열었던 전작 〈왼손의 움직임〉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된다. 전작에 참여한 작가들이 모두 1970년대에 태어난 화려한 경력의 작가들인데, 자신의 목표를 위해 달려오다 멈춰 서고 낯선 시도를 한 것이 공통점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것과는 다른 결과물이 전시됐다. 이전과는 다른 감각을 실험해 만든 것들이다.

모두 다양한 레지던시를 거쳐 만난 인연인데 그들에겐 공통의 관심사가 있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은 창작 활동 기회가 주어졌지만, 어느덧 40대 중반을 넘기자 지원의 사각지대에 빠지는 상황이 닥쳐왔다는 것이다. 임 작가 역시 한때는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그간의 노하우를 녹여내 다시 날갯짓했다. 제2의 인생을 위해 도약하는 그에게서 이번 전시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 있었다. “청년작가들과 같이 ‘힙’하지는 않으나 ‘스타일’이라는 명분으로 자칫 고착될 수 있는 작업 양식 안에서 이번 전시를 통해 유연성을 얻어 새로운 작업을 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글 이규승·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장

‘낯섦’이라는 어떤 희망

임선이 작가



임선이는 중앙대학교와 동 대학원의 조소과를 졸업했다. 주요 전시로는 〈제1회 JCC 예술상&프린티어 미술대상 수상자 전시〉(2017), 〈Photo-initially, finally〉(2019), 〈반려생활-Companion〉(2019), 〈아트경기 유니온아트페어〉(2019) 등이 있다. 수상 경력으로는 송은미술대상전 장려상(2004, 2008), 제28회 중앙미술대전 올해의 선정작가25(2006), 대한민국청년비엔날레 청년작가상(2006) 등이 있다.

공공예술 프로젝트〈소원반디〉가 밝힌 공연예술계의 배리어프리

서울문화재단과 (주)한성자동차의 공공예술 프로젝트

2019년 12월 한 달간 시민들이 참여해 완성한 5,000여 개의 태양광 소형등, '소원반디'가 덕수궁 돌담길을 가득 메웠다.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주)한성자동차가 후원해 진행한 〈소원반디〉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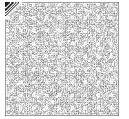
서울문화재단과 (주)한성자동차가 시작하고, 시민이 참여해 완성된 이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시민이 한 개의 '소원반디'를 완성해 재단에 기부하면 기업에서는 개당 1만원의 후원금을 내는 형식으로 진행됐고, 모인 성금은 공연예술계 배리어프리를 위한 지원금으로 적립됐다. 서울시청 광장, 코엑스, 을지로 등을 거점으로 5,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이를 통해 적립된 추가 기업후원금 5,000만 원이 배리어프리 인식개선 캠페인과 관련 전문인력 교육과정에 쓰이고, 그 결실을 갖고 2020년 하반기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배리어프리 공연 인식개선 캠페인

배리어프리 공연은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관객 모두가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공연 중 수어통역, 음성 해설, 자막 등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관객이 극장의 매표소에서부터 객석에 착석하기까지 물리적 장애물 없이 오고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중 별도의 소리장치와 스크린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음성 해설, 자막 등과는 달리 공연 중 무대 위 배우와 근접한 거리에



덕수궁 돌담길 '소원반디' 전시 광경(위)과
〈소원반디〉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민 모습(아래)



공연예술 분야 수어통역 전문가 교육과정 진행 모습

서 제공되는 수어통역은 비장애 관객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우려가 따르기도 한다. 하지만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관객에게 수어통역이나 자막이 제공되지 않는 공연은 외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비장애 관객이 외국 공연을 자막 없이 이해하는 것보다도 더욱 어려운 일일 수 있다. 대사를 이해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 외에 공연의 효과음과 배경음악 등 제공받는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배리어프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연이 많아지는 만큼, 배리어프리 공연을 접하는 비장애 관객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수반돼야 할 것이다. 그 노력의 첫걸음으로 2020년 10월부터 서울의 주요 공연장 인근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배리어프리 공연에 대한 공익 캠페인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공연 중 제공되는 수어통역이 극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닌, 모두가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공연 중 제공되는 자연스러운 서비스의 일부로 인식되는 날이 오길 바란다.

공연예술 분야 수어통역 전문가 교육과정

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의 2020년 전 시즌 배리어프리 제공을 시작으로 지난 4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학

로예술극장에서 진행된 <오셀로와 이아고>는 배리어프리 공연으로는 처음으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처럼 국공립 극장에서 제공하는 배리어프리 공연의 횟수와 종류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점차 늘어가는 수요에 비해, 공연예술 분야에 특화된 수어통역 전문가의 수는 매우 제한적이고, 전문 교육과정은 전무한 상황이다.

서울문화재단은 국내 최초로 공연예술 분야 수어통역 전문가 교육과정(8월 18일~9월 19일, 총 8회)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수어통역 자격증 보유자 및 수어 능통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수어통역과 공연예술의 수어통역 구현 방식 차이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본 과정의 수료자가 실제 공연에 투입돼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공연예술 현장은 물론 청각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향후 배리어프리 공연의 확산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통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모든 관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문화가 자리 잡길 바란다.

글 김영지_서울문화재단 메세나팀 사진 서울문화재단

배리어프리 소개

배리어프리(Barrier-Free)란 공연장에 경사로 확보를 비롯해 공연 중 실시간으로 수어통역, 음성 해설 등을 제공해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도 공연장을 찾아 즐길 수 있도록 공연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장벽을 허무는 것을 일컫는다. 1974년 유엔에서 소개한 '배리어프리 디자인'이라는 건축용어에서 시작됐으며, 최근에는 공연장의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없애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아트서울 기부투게더]는 작지만 의미 있는 예술 프로젝트부터 우리의 삶을 바꿀 문화도시 프로젝트까지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서울문화재단의 예술 기부 브랜드입니다. [문화+서울]에서는 [아트서울 기부투게더]를 통해 예술 기부로 함께하는 기부자의 인터뷰로 아름다운 나눔 정신을 알리고 있습니다.

서울 할나

서울, 도봉구 도봉산 아래
무수골(無愁谷)
없을 무
근심 수
근심 없는 이곳에 벼꽃 만개하고
꿀벌들 가을을 실어 옮기네

*서울시 도봉구 도봉1동 무수골은 600년을 이어온
다람이 눈에 벼농사를 짓고 있다.

〈도봉1동 무수골〉
글·사진 김영호_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 이후, 예술인의 복지와 사회보장

제2회 코로나19 예술포럼: 예술의 가치와 미래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의 삶이 코로나19로 더욱 위협받는 상황 속에, 지난 5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된다. 눈앞으로 다가온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으로 생길 변화를 짚어보고, 주요 쟁점과 대안, 재난 상황에서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7개 문화예술기관 공동 주최로 1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열리는 ‘코로나19 예술포럼: 예술의 가치와 미래’의 2회차 행사였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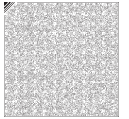
일시	2020년 7월 28일(화) 오후 2시
장소	블루스퀘어
주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회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발제	차민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이썬정석 뮤지션유니온 前위원장, 심어송라이터 정안나 연극인복지연구소 대표, 연극연출가 진형민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운영위원장, 동화작가 김용제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회장 양영미 근로복지공단 적용확대추진TF팀 팀장

토론회 영상 youtu.be/lf1wu6IZsvc

발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의 의미와 과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배경에는 예술인 노동 형태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술인은 프로젝트 단위의 단속적 활동을 합니다. 용역 계약을 하고 계약직 또는 임시직 형태로 일합니다. 다음 프로젝트가 확정될 때까지는 준비 기간을 가집니다. 또 다른 특징은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겁니다. 용역 계약은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계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고, 2014년부터 자발적인 임의가입 방식으로 추진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018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하고 특수고용직과 예술인 대상의 당원가입 방식 추진을 의결했고, 지난 5월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12월 10일 시행됩니다. 의무가입이 특징이며, 적용 대상은 용역 계약을 하는 프리랜서 예술인입니다. 고용보험요율은 근로자와 같은 1.6%로,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0.8%를 분담합니다. 가장 큰 혜택은 비자발적인 이직 상황에서 구직급여와 출산급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아직 해결할 과제가 많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계약서상에 기간과 용역비가 명확히 표시되고, 실제 노무 제공 기간과의 괴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예술계의 팀계약 관행입니다.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모인 스태프는 제작사와 각각 용역계약을 맺기보다는 1명이 대표로 일괄수주계약을 하고 나눠 갖는 구조를 취합니다. 문제는 계약서상에 참가하는 모든 인력의 인적 사항이 표시되지 않고, 각각의 참여 기간과 비용이 표기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의 50%를 지불할 사업주가 누구인지의 이슈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 대표 계약자에게 사업자등록증과 스태프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을 참고해 원청을 사업자로 하는 방향을 계획하고 있는데, 향후 이러한 관계를 명확히 하는 계약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별로도 매우 다양한 형태의 노동과 계약이 발생합니다. 표준화된 형태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며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이 발생하지 않는 장르에는 적용이 어렵고, 구직급여 최소 수급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과는 별도로 창작준비금 지원 같은 예술인 복지 사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서면계약 체결 문화 조성과 행정에 대한 제도 지원이 필요하고, 소규모 사업체의 저소득 가입자 대상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예술계에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스스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최소한의 투자임을 인식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취약성이 드러난 사회안전망

박소현 앞으로 시행 예정인 고용보험이 담고 있는 내용과 안고 있는 과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4분의 패널께서 예술인으로서 직접 체험하거나 동료들과 나눴던 쟁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술인들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경험해 온 위기 상황을 코로나19로 얼마나 더 체감하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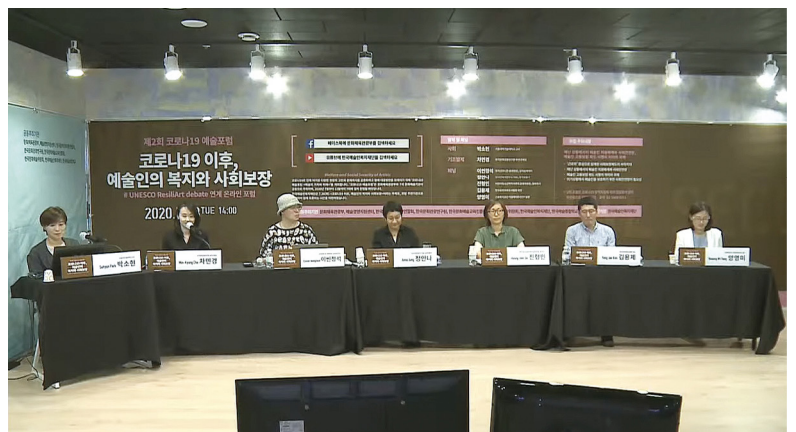
이반정석 예술인들은 불안정한 노동을 하는 구조적 취약계층이고, 코로나19로 강제 실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사회보장체계는 불안정한 노동 자체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술인은 단속적인 계약 관행과 소수를 제외한 저임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또 하나 서면계약조차 일반화되지 않아 존재 증명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예술활동증명을 하지 못하는 현장의 다른 장르, 형태의 종사자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 협·단체의 예술인 인증과 공모 지원 방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실험이 이뤄지는 공간의 활동이 위축되고, 음향·조명·무대 운영을 해온 회사나 엔지니어가 고사하고 있습니다. 예술인의 사회보장과 감염병 위기에 대응할 대책기구나

매뉴얼이 문체부에 있는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예술인 실태조사의 한계나 모집단의 문제를 극복하면서 기초나 작은 단위 중심으로 현실에 맞는 실태조사가 진행된다면 좋겠습니다. 직접 지원 방안으로 예술인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예술인들이 생계를 이어가면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예술인 스스로가 권리를 찾기 위해 주체를 형성하고 네트워크·연대·조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당사자 운동을 실현해 갈 때 사회적 인정과 예술인의 노동권 증진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박소현 예술인 당사자 운동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예술인이 직업적으로 인정받고 사용자 측과 협상력을 갖는 노동 활동이 연계될 수 있는 지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안나 빈사 상태였던 공연계는 비대면 시대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연극인들은 물류창고에서 일하고 배달과 대리운전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 일을 더는 할 수 없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코로나19로 폐쇄해져 있습니다. 그나마 창작준비금, 코로나 지원금으로 연명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극장 감염이 단 1건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국공립 극장들은 상반기를 보내고 나서야 문을 열었습니다. 민간 소극장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감염 예방 관리를 해온지 아십니까. 100석 극장에 25명 앉혀놓고도

온라인으로 중계된
제2회 코로나19
예술포럼 현장





(왼쪽부터)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진형민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운영위원장·동화작가,
김용제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회장

공연하는 게 어디냐며 행복해했습니다. 언제 갑자기 취소될지 모르는 공연을 준비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시기에 공연한다고 매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극은 과연 잉여의 것일까요. 이 일은 직업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싸울 겁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행정 용어 까다롭고, 사회보장보험 내용 어려워도 복지 주체로 성장하려고 합니다. 예술지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임을 보여주고, 예술이 공공재임을 알릴 것입니다.

진형민 코로나19 이후 어린이·청소년책 작가들은 두 가지 양상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절대적인 수입 감소입니다. 자체 조사 결과 70%가 전업 작가이고, 인세와 강의 수입이 절반씩을 차지합니다. 강의 수입은 일회성 예술교육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도서관이나 학교 운영이 중단되면서 작가 강의가 모두 연기 혹은 취소되었지요. 창작 관련 피해는 48.6%, 강의 관련 피해는 76.4%에 이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에 온라인 수업이 급히 도입되면서 저작권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습니다. 많은 작가가 온라인 수업에 책을 읽어줘도 되느냐는 교사들의 전화를 받았습시다. 대다수의 작가들은 학교 온라인 수업 지원과 같은 공익 목적이라도 저작물이 사용된 경우 반드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단체에서 문체부에 질의서를 보냈는데,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 보상이 불가능하고 법 개정 계획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이는 온라인 수업이 극히 예외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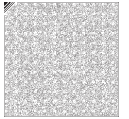
이던 시절에 마련된 ‘저작권법 제25조 4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달라진 시대에 맞는 기준과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긴급지원금보다 더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받는 일입니다.

김용제 저는 공연예술계를 중심으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 단체는 1·2인 기업이 다수고, 많아도 10인을 넘지 않습니다. 공연 콘텐츠 제작은 창·제작진이 모여서 하는 특수성이 있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26.1%에 불과합니다. 민간 기업은 공연을 하지 못하면서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공연을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콘텐츠를 준비하기 위해선 최소 1~3년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 내후년에 우리나라 공연 콘텐츠는 사장될지 모릅니다. 대학로 공연장의 가동률은 30% 미만입니다. 적자 폭이 커지면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대해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술인을 고용할 수 없다면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제작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준다면 고용보험의 형태도 선순환 구조로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당사자의 목소리 반영해야

박소현 이제 고용보험 도입의 의미와 과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주제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양영미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양영미 먼저 고용보험법에서 적용 대상 예술인은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판단은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며, 해석 권한을 가진 문체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적용 대상 판단 후 계약 기간 1개월 이상은 일반 예술인, 1개월 미만은 단기 예술인으로 관리합니다. 연령과 소득 기준을 두어 65세 이상은 제외하고, 소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따라 적용 제외를 합니다. 단기 예술인의 경우 소득 기



준에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실업급여 사업 중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5가지이고, 단기 예술인은 1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24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9개월 이상이고, 근로나 노무 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예술인은 일부 소득 감소에 대한 이직까지 인정합니다. 3개월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단기 예술인은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14일간 연속으로 일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산정된 기초 일액의 60%를 받습니다. 예술인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금액과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보수'라 하고, 이를 일 단위 보수로 환산해 기초 일액으로 삼습니다. 이 보수에 60%를 곱해 구직급여 일액을 책정하는데,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은 6만 6,000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한액은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80%지만 예술인은 보수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하한액을 별도로 두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구직급여 일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하한액·상한액은 대통령령이나 고시를 통해 알려집니다. 지급 기간은 근로자와 같은 수준(120~270일), 출산 전후 급여는 평균 보수의 100%, 3개월 이내로 검토 중입니다.

고용보험제도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자의 진입은 예술인 당면 적용이 처음이다 보니 제도 안착을 위한 협조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피보험자격 관리와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지는 사업주의 신고가 절실합니다. 서면 계약 체결이 정착되고, 용역 대금 지급과 수령이 투명해야 하고, 기여분에 대한 보장 혜택이다 보니 0.8%의 본인 부담에 대한 이해도 공유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박소현 두 번째 토론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의 의미,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것, 위기 상황에서 향후 필요한 제도·정책, 3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선정석 일단 예술인 고용보험 자체가 예술인 직업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구두로 진행되던 계약 관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자 사용자성을 명확히 하고 전근대성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예술활동증명의 범주가 장르별로 구체적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포함되면서 재구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쟁점은 우선 '대상'입니다. 건별 소득 기준 아래의 예술인은 들어갈 수 없고, 단기 예술인은 월 9일만 일하면 합산이 안 됩니다. 기준 보수가 월 100만 원이면 구직급여는 60만 원인데 사실 이걸로 생활하긴 힘들죠. 그렇다고 다른 일을 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화예술계 주요 원청인 정부와 공공의 사용자성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예술인들이 겪게 될 혼란한 계약관계를 예술인 고용보험지원센터를 구성해서라도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다중활동에 대한 보험 관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무엇보다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제도, 협의와 운영이 필요하고, 예술인 당사자가 고용보험위원회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문체부도 의견만 전달할 게 아니라 이해 당사자와 토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정안나 일단은 고용보험을 시작하는 시기가 정말 안 좋습니다. 코로나19로 고용보험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국가 주도로만 진행되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현행 고용보험이 피보험자의 30%만 혜택을 받아서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용보험 재정이 취약해진 점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오히려 현시점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부조 제도가 합리적이고요.

대안으로 노동조합이 실업보험 기금을 관리하는 북유럽의 '겐트 시스템(Ghent System)'을 제안합니다. 덴마크는 정부 인가를 받은 30개의 노동조합이 경쟁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실업보험료 외에 행정 운영비를 별도 징수합니다. 노동조합이 실업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자발적인 실업보험 제도인 거죠. 예술인 관련 노조가 초기 단계인 우리에게는 시기상조라지만 그래서 더욱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에게는 실현 가능한 실업급여, 당사자의 참여와 역할, 고용·훈련·복지가 연계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없이 어떤 제도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능력 있고 책임 있는 노동조합이 다양하게 생겨야 이 안에서 활동하는 모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박소현 북유럽의 제도를 참고해 노동조합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을 검토해 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형민 작가의 창작 환경과 출판계 관행에 비춰봤을 때 구직급여 조건을 충족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작가는 출판사와 출판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요. 계약서에는 원고양도와 출간 날짜, 인세의 비율, 계약금액 등이 적혀 있습니다. 작가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출판사와 별도의 노무 계약 혹은 작업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노무 계약 내용을 정식 문서로 남기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때 저작권자가 아닌 피고용인의 입장으로 대응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작가가 출판사로부터 받는 돈은 계약금과 인세입니다. 계약금도 선인세 개념이라 결국 모두 인세인 셈이죠. 인세는 정해진 비율의 저작권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글 쓰는 일이 분명한 노동임에도 작가는 고용노동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공연·실연 예술가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프랑스는 저작권 수입을 소득원으로 하는 작가, 화가, 작곡가를 별도의 제도로 분리해서 관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작권 수입 그룹의 창작자들을 예술인 고용보험이라는 하나의 그릇에 담아버렸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편법 동원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낫고요. 창작자 그룹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정확히 요구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

박소현 용역 계약과 저작권 계약은 구별돼야 한다는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용제 공연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정말 고용하고 싶습니다. 고용을 해야 고용보험도 있습니다.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약속된 공연은 일방적 통보로 취소되는 경우가 다

반사였습니다. 준비 과정에 발생한 비용은 고스란히 제작자가 부담하고요. 규모가 큰 공연을 하면 100명 이상의 창·제작진이 함께합니다. 수많은 피고용인은 일정 시점에 시작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간중간 수많은 행정 절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보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공연예술 분야의 사업주들은 고용의 창출·유지를 통한 시장 확대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각 분야별 피보험자와 고용주별로 판단하고,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확대해야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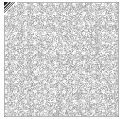
박소현 고용보험이 문화예술계에 큰 선물이 될 수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행정 영역과 예술 현장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영미 ‘보험료징수법’에서는 사업주가 모든 신고 또는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하도록 설계돼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예술인 고용보험이 들어오다 보니 사업주가 예술인의 전체 소득을 합산할 자료 취합의 근거나 소득 정보를 활용해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징수법을 검토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예술인 적용 특례를 가져오면서 근거를 마련했고, 규모나 소득 기준은 향후 정해질 예정입니다.

이썬정석 저는 서면계약을 디지털로 하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 준비나 검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수 지급 형태도 에스크로(escrow) 방식 등 보험료를 원천공제하는 식으로 운영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 예술인 고용보험 트랙 안에서 적용 가능성이 있을까요.

양영미 서면계약을 전자로 하는 형태의 문제라 계약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보수 관련해서는 국세청 자료를 연계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바로 적용하기 어려워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차민경 서면계약 문화를 확대하는 노력과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중요하고요. 예술인 고용보



(왼쪽부터)
정안나
연극인복지연구소 대표·
연극연출가,
이썬정석
뮤지션유니온 前위원장·
싱어송라이터,
차민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양영미
근로복지공단
적용확대추진TF팀 팀장

협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장기적인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예술인 복지정책에서 실업부조 개념의 사업이 좀 더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요, 예술인 고용보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전방위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합니다.

박소현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청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썬정석 일단 당사자들이 나서서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를 위해 계속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예술 활동은 사회와 소통하면서 예술적 성취를 나와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국가·정부가 예술인의 생계와 삶의 조건을 깊숙이 배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안나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니 환자 역할을 하는 출연자들이 전부 연극배우더라고요. 드라마를 살아 숨 쉬게 하고, 보는 이가 진짜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연극 배우한테 거대 자본은 박수 몇 번, 광고 1~2건, 개인 개런티 올리는 보상으로 끝냅니다. 적어도 2000년 이후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한국 연극에 거대한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연극계에 단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 갚을 적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엑스트라들이 어설픈 연기를 하던 환자 역할을 월 30만 원도 못 벌고 10년을 하루같이 연기하던 연극배우들이 아프게 해내는 겁니다. 드라마 보고 웃고, 영화 보고 박수 쳤던 모두가 연극인들한테 빛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연극이 남아 있지 않은 순간이 오기 전에 기초예술을 지원하고 도와주십시오. 살아갈 수 있게 복지 시스템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오. 극장 문을 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진형민 예술인 복지정책은 보편복지로 기본 방향을 잡아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유네스코에서 채택한 ‘예술가 지위에 관한 권고’가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예술가의 삶이 빈곤해서가 아니라 사회의 전문인력으로 공공선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들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김용제 문체부 내 여러 부서가 통합적 시각으로 같이 논의해야만 고용보험이 안정화되고 시행에 있어 충분히 가치를 발휘할 거라 생각합니다.

양영미 제도가 소개되면 정확한 안내·홍보·교육 등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도 시행 이후에는 행정을 맡은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고 확실하게 수행해서 조기에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차민경 예술인 고용보험은 이제 시작점에 있고 앞으로 완성해 나가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예술인이 내는 의견과 문제 제기가 제도 개선에 중요한 자료로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소현 이 포럼의 주제가 ‘예술의 가치와 미래’입니다. 유네스코에서 리질리아트(ResiliArt)운동을 하는 것 역시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예술의 힘을 전 세계에 알리려는 측면도 강합니다. 그러한 공감대를 포럼이 개척되는 동안 확대해 나가기 바랍니다.

정리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사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유튜브 갈무리

‘오토픽션’과 사생활 침해

소설가 김봉곤 사적 대화 무단 인용 논란

지인과 나눈 문자메시지가 소설의 한 부분을 차지했다. 당사자의 동의 여부도 문제였지만, 개인의 사생활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내용을 과연 소설에 그대로 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논의는 확대될 수 있었기에, 쉽게 넘어갈 수만은 없는 문제였다. 지난여름, 출판계를 뜨겁게 달군 소설가 김봉곤의 사생활 무단 인용 논란은 출판계를 넘어 창작 윤리의 문제로까지 번졌다. 사건의 발단과 오토픽션 논란을 함께 알아본다.

김봉곤은 커밍아웃한 최초의 게이 소설가로 유명해졌다. 그는 첫 소설집 《여름, 스피드》(2018)에서부터 남성 동성애자의 사랑과 이별을 격정적인 문장에 담아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비슷한 무렵에 첫 소설집을 낸 박상영과 함께 한국에서 게이 문학의 장을 본격적으로 연 작가로 평가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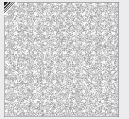
‘오토픽션’ 그리고 ‘사소설’

김봉곤이 커밍아웃한 게이 소설가라는 사실에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독특한 소설 작법이다. ‘오토픽션(autofiction)’이라는 방식이 그것인데, 영어로 자서전을 뜻하는 ‘autobiography’와 소설을 가리키는 ‘fiction’을 축약·결합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자전소설’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자전소설과 구분되는 모종의 극단성을 특징으로 삼는다. ‘내가 경험한 것만 쓴다’는 원칙이 그것. 2016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당선작인 중편 〈auto〉에서 그는 이렇게 쓴 바 있다. “전적으로 나에게 기대어, 나를 재료 삼아 쓰는 글쓰기, 나를 모르는 사람은 배려하지 않는 배타성, 그 배타적임으로 생기는 내밀함을 나는 놓치고 싶지 않았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오토픽션이라는 말은 형용모순이다. 픽션이란 정의상 허구적 글쓰기를 가리키는데, 그 앞

에 ‘자전(적)’이라는 말이 붙는 게 어색해 보이는 것이다. 말하자면 허구적 자서전이라는 것. 이러할 때 ‘허구’와 ‘자서전’은 서로 충돌한다. 오토픽션과 비슷한 것이 일본에서 특히 성행한 장르 ‘사소설(작가 자신의 체험을 그대로 그려낸 소설)’이라 할 수 있겠다. 많은 소설이 어느 정도는 자전적 요소를 지니게 마련이라 해도 일본의 사소설은 정도가 심한 편이다. 가령 나쓰메 소세키의 문하생이자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친구였던 소설가 구메 마사오는 사소설이야말로 소설의 정수라고까지 주장했다. “결국 모든 예술의 기초는 ‘나’에 있다. 그렇다면 그 나를 다른 가탁 없이 솔직하게 표현한 것, 즉 산문 예술에서는 ‘사소설’이 명백히 예술의 본도(本道)이자 기초이며 진수이어야 한다.”(〈‘사’소설과 ‘심경’소설〉)

구메 마사오의 이런 주장은 어쩐지 앞서 인용한 김봉곤 소설 〈auto〉의 한 대목을 떠오르게 한다. 두 사람의 소설관은 거의 흡사해 보인다. 구메가 말하는 “가탁 없이 솔직하게”는 곧 김봉곤이 추구하는바 “배타적임으로 생기는 내밀함”과 같은 게 아니겠는가. 김봉곤의 이 말에 앞서 나오는 표현이 “나를 모르는 사람은 배려하지 않는 배타성”이거니와, ‘모르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야 그렇다 쳐도 ‘아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데에서 불거진 문제가 얼마 전 문단 안팎을 뜨겁게 달구었다.



예술을 앞세우기보다는 다각적이고 신중한 접근 필요

사태는 자신을 출판 편집자라고 밝힌 트위터 이용자명 '다이섹슈얼'이 7월 10일 트위터에 올린 글로 시작됐다. 그는 김봉곤의 단편 〈그런 생활〉에 자신이 작가에게 보낸 개인적 문자메시지가 고스란히 들어 있다며 작가의 사과와 함께 이 작품을 수상작으로 뽑은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의 수상 취소 등을 요구했다. '다이섹슈얼'의 트위터 글에 대해 김봉곤은 자신이 소설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문자메시지를 소설에 쓰는 데 대해서도 동의를 얻은 것으로 생각했노라는 요지



의 해명문을 올렸다. 젊은작가상을 주관하는 출판사 문학동네 역시 문제가 된 문자메시지를 삭제한 버전으로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본 결과 수상 취소까지 갈 문제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다이섹슈얼'은 김봉곤의 행위로 인해 자신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수상 취소 요구 등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트위터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 공간에는 그의 고통에 공감한다며 문학동네와, 해당 작품이 수록된 소설집 《시절과 기분》을 낸 출판사 창비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사태는 자신을 김봉곤의 첫 소설집 표제작인 단편 〈여름, 스피드〉의 등장인물 '영우'라고 밝힌 이가 7월 17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봉곤이 자신의 문자 역시 허락 없이 소설에 인용했으며 그 때문에 강제로 자신의 성 정체성이 까발려지는 '아우팅' 피해를 당했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김봉곤은 해당 사실을 인정했고, 문학동네와 창비는 김봉곤의 두 소설집과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판매 중지를 결정했다. 김봉곤은 7월 21일 올린 사과문에서 “부주의한 글쓰기가 가져온 폭력과 피해” “고유의 삶과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채 타인을 들여놓은 제 글쓰기의 문제점”을 반성한다며 두 피해자와 독자 및 출판 관계자, 동료 작가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이번 사태는 소설 창작과 사생활 침해의 관계를 둘러싸고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 오토픽션의 선배 격이라 할 수 있는 노르웨이 작가 칼 오베 크나우스고르가 대표작 《나의 투쟁》에서 아버지 등 주변 인물들을 부정적으로 그렸다는 이유로 송사에 휘말리고 가족과 절연했다는 사실은 오토픽션이라는 글쓰기 방식에 내재한 위험성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번 일로 작가에게 주어진 창작의 자유가 위축돼서도 곤란하겠지만, 예술의 이름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격과 존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만큼은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글 최재봉 《한겨레》 기자

이곳에 부흥을, 아니 뼈저린 자성을!

남산예술센터 2020 시즌 프로그램
〈남산예술센터 대부흥성회〉연습 현장

귀에 익숙한 찬송가 소리에 맞춰 안무 연습이 한창이다. 교회 예배에서 종종 접하는 간증(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과도 같은 대사를 열렬히 읊는 배우와 연신 들리는 ‘아멘’과 ‘할렐루야’까지. 마치 이것은 예배 준비를 위해 열심인 곳이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남산예술센터 대부흥성회〉는 교회의 예배 형식을 그대로 연극에 들여왔다.

※본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정확한 일정은 남산예술센터 누리집(www.nsac.or.kr)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대부흥’ 전에 짚고 가야 할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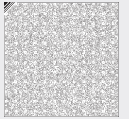
오는 9월 무대에 오를 예정인 연극 〈남산예술센터 대부흥성회〉의 런 스루(전막연습)가 진행된 8월 어느 날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를 찾았다.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와중에도 연습 현장은 이리저리 분주한 배우들 덕에 활기가 넘쳤다. 〈남산예술센터 대부흥성회〉는 한국 기독교 보수화의 역사와, 이와 유사하게 흘러간 남산예술센터의 성장 과정을 함께 조명하는 작품이다. 남산예술센터는 동랑 유치진이 설립한 공공극장이지만, 현재 소유권은 서울예술대학교(이하 서울예대)에 있고 서울문화재단이 임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예대 측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후 극장 소유권 논란은 끊임없이 진행돼 왔다. 서울예대 설립자인 유치진이 1960년대에 정부 땅을 특별로 불하받아 극장으로 쓴 과거사 또한 남산예술센터 소유권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거리다. 〈남산예술센터 대부흥성회〉에서는 한국 기독교의 뿌리부터 시작해 그것이 국내 보수 세력과 결집하게 된 연유를 배우의 대사를 통해 밝히고, 이는 곧 남산예술센터의 성장사와 자연스럽게 연결됨을 보여준다. 그렇게 그 본질을 잊고 부패한 기관들의

각성을, 예배의 형식을 빌려 촉구한다. 그리고 참회를 구한다. 극장, 기독교,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권력화된 부분을 바로잡고 나서야 ‘대부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퀴어와 기독교, 그리고 한국 사회

사실 극 중반부 이후 중심이 되는 인물은 바로 ‘퀴어 예수’다. 그는 성경에 나온 예수의 생애, 즉 이 땅에 내려와 펴막을 받으며 죽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지만 ‘여자’를 사랑하지도 ‘남자’를 사랑하지도 않으며, 자신과 같은 성을 사랑하는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도 갖지 않는다. 관객들은 처음에는 “예수가 퀴어라고?”라며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행적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임을 받아들이게 된다. 지금 보수화된 기독교에서 가장 배척하는 대상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기독교가 주창하는 ‘사랑’ ‘박애’ ‘관용’과 같은 개념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지 되짚어보게 된다.

극 중간 중간에는 ‘육우당’이라는 인물이 쓴 시와 글이 인용돼 대사와 함께 낭독된다. 육우당(본명 윤현석)은 동



©이강물

〈남산예술센터
대부흥성회〉 콘셉트 사진

성애자인권연대에 가입, 학생 신분으로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하다 “아비규환 같은 세상이 싫다”며 2003년 18세의 나이로 목숨을 끊은 청년이다. 육우당의 글은 연극에 리얼리티를 부여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하나의 꽃이다. 육우당의 유언이 낭독될 때, 그가 이 사회에 외치는 메시지를 또렷이 들을 수 있었다.

모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연극

임성현 연출은 연극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제의성과 예배의 형식적인 특성의 교집합을 찾아냈다. 연극 또한 제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설이 있고, 예배에도 어딘가 ‘퍼포먼스’적인 것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예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언가를 앞에서 한다는 것. 무언가를 공유하고 약속하고 나누고 하는 것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연극이랑 비슷하다고 느꼈다. 덧붙여 일방적인 예배 방식보다는, 연극에서만큼은 재미있고, 관객

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제 원형극장은 예배당으로 변하고, 무대에는 성가대도 함께한다. 또한 SNS로 모집한 100명의 영상 합창단도 함께할 예정이다. 성경 말씀이나 익숙한 찬송가도 등장한다. 그러나 작품의 전막연습을 보고 난 후에 가장 인상 깊게 남는 건, 찬송가가 아니라 극 중 배우들이 춤을 추며 함께 부른 레이디 가가의 〈Born this way〉 중 “I’m on the right track baby(난 제대로 가고 있어). I was born this way(난 이렇게 태어났어)”라는 노랫말이다. 이 연극에서 말하는 ‘퀴어’가 성소수자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점은 머리보다 가슴으로 이해된다. 이 정도면 모든 소외된 곳, 변두리에 있는 이들, 중심이 아닌 주변에 있는 이들이 조그마한 ‘유대감’이라도 얻어갈 수 있었으면 한다는 연출가의 작은 바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까.

글 전은정·객원 기자 사진 제공 남산예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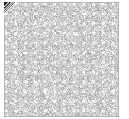
오다가다 마주하는 정겨운 사람들과 다시 만들어가는 ‘동네’ 이야기

공유주택 용두동집

‘사람들이 생활하는 여러 집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영성적이다. 정겹게 맞아해 주는 누군가, 익숙한 얼굴들, 따뜻한 밥상... 이런 것들이 ‘동네’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들어가야만 할 것 같다. 그리고 그 중심엔 엉뚱하고 따뜻한, 그리고 주변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긴 ‘사람’이 있다.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이뤄져 있는 ‘용두동집’(동대문구 안암로6길 19)은 ‘주거공간’과 ‘공유공간’이 혼합돼 있는 ‘공유주택’으로, 큰길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위치해 있다. 정림건축문화재단의 ‘도심 속의 공동체’ 작업의 일환으로 기획돼 2018년 10월 입주를 시작했다. 현재 운영을 도맡고 있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체 하나살림의 김선규 대표도 이곳에 살고 있는 입주민이다. 3~5층에는 80대 노부부부터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까지 꽤 다양한 연령대와 구성의 6가구가 모여 산다. 여기까지만 보면 여느 집합주택과 다를 바 없지만,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분포돼 있는 공간들이 이곳을 특별하게 만든다.

지하 1층에는 ‘동네극장’이라는 공간이, 지상 1층에는 ‘동네책방’이라는 공간이 지역 주민에게 열려 있다. 그리고 싱크대·식탁·조리 공간이 마련돼 있는 널찍한 2층 공간은 ‘공유주방’으로, 입주자들이 주로 사용하지만 행사가 있을 때는 외부인에게도 오픈되는 ‘세미 퍼블릭’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로 이 공간을 채워가고 있다.



삶의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 내 삶의 일부를 공유한다는 것

각 세대에는 세탁기가 없는 대신, 3층에 마련된 세탁기 3대와 건조기 2대가 놓인 '세탁실'에서 세탁을 함께 한다. 세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용 공간을 이용해야 하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각 가정마다 조그마한 주방은 있지만, 많은 음식을 해야 한다면, 친구들을 초대해서 왁자지껄하게 식사를 하고 싶을 때는 2층에 있는 공유주방을 이용하면 된다. 혹자는 이런 형태를 '불편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이 공간을 운영하는 김 대표는 '개별적으로 나뉜 삶'이 오히려 행복한 삶을 방해한다고 느꼈다. '집' 보다는 '덜' 사적이지만, 내가 편하다고 느끼는 '나의 공간'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묘미가 아닐까. 그야말로 '삶'의 한 조각을 공유하는 셈이다.

운영진과 손님의 경계가 없는 책방과 극장

용두동집을 찾은 날에도 1층 동네책방에서 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익숙한 일과라는 듯 무심히 음료 한 잔을 시켜 드시는 동네 어르신과 삼삼오오 모여 모임을 갖는 이들, 각자가 가지고 온 책이나 노트북을 이용하는 이들까지. 실제로 '매일' 오는 사람도 많다고 하니 무언가 '매력'이 있는 모양이다. 이 공간은 카페로도 운영되는 동시에 격주로 화·목 일주일에 두 번 독서 모임이 열리거나 매주 금요일 뜨개질 등을 배울 수 있는 강좌를 비롯해 연극, 악기 등을 배우는 모임도 진행되고 있다.



1 '동네책방'의 모습. 동네 주민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이 함께 진열돼 있다.

2 공연장과 연습 공간으로 활용되는 '동네극장'

"처음에는 생협이나 숭인숍(Shop in Shop)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죠.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동네라는 개념이 없어진 셈인데, 명색이 '사랑방'이라면 편하게 앉아서 마실 음료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책이라는 소재가 떠오른 것 같아요." '책'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하나의 좋은 징검다리였다.

신기한 점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설거지를 하는 이도 월급을 받는 직원이 아니라, 오다가다(?) 단골이 돼 봉사의 개념으로 일하고 있는 이들이라고 하니, 알면 알수록 신기하게 돌아가는 곳이다. 게다가 이곳에서 운영되는 강좌 프로그램도 이곳에 들어서 친해지게 된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터놓다가 그들의 재능을 발휘해 시작된 경우가 많았다.

김 대표는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술인들이 먼저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공연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연습실 구하는 것이 큰 이슈인데, 동네극장 공간을 연습실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예술인들의 연습 공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지하 1층의 동네극장은 작은 무대가 마련된 공간으로, 실제 공연이 열리거나 연습을 할 수 있다. 지난 7월, 이곳에서 열린 <공짜(사람을 이어 공간을 짜다)>는 코로나19로 인해 계속 공연을 올리지 못하던 중, 작년 이곳에서 공연한 두 팀이자, 동네극장 상주단체인 '플레이그룹 잼잼'과 연희단 '놀플러스'와 함께 기획한 공연이다. 지역 주민들이 예술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면서도 '언택트 시대'에 맞춰 용두동집을 7개 공간으로 나눠서 각 공간에 한 명씩 들어가서 체험하는 식으로 극을 보여줬다.

현대인의 삶 속, 레이어 만들기

"현대인의 삶은 조금 단층적인 것 같아요." 김 대표는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레이어(층)를 만들고 사람들이 만남으로써 그 층을 겹쳐가는 과정을 통해 도심 속 공동체의 가능성을 꿈꾸고 있었다. 이 공간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 통해서 다양각색의 삶을 직간접적으로 느끼고 그것이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말했다.

2층 공유주방에서 진행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인 <밥은 먹고 다니니?>를 기획한 계기도, 청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접 물어보고 '집밥'이라는 대답이 돌아와서였다고 한다.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나는 지금, 고립된 '섬' 같다는 사람들. 그러나 그 속에 이같이 외롭지 않은 공간이 있어 다행이다.

글·사진 전은정, 객원 기자

아름답고도 잔인한 존재, 인간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과
연극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

누군가를 죽는 날까지 사랑하거나, 누군가를 죽을 때까지 착취하거나.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과 연극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이 보여주는 인간의 상반된 모습이다. '어쩔'을 본 뒤엔 뜻뜻하고 또 달콤했던 옛사랑이 떠오르다가도, '엘레나'가 끝나고 나면 내 안에도 조그만 악들이 도사리고 있진 않을까 돌아켜보게 된다. 과연 인간의 민낯은 어느 쪽을 더 닮았을까.

※이번 호에 실린 공연·행사 등의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시 사랑하고 싶어진다, 로봇들 덕분에

<어쩌면 해피엔딩> | 6. 30~9. 13 | 예스24스테이지 1관

인간의 사랑을 어깨너머로 배운 로봇들이 인간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사랑을 한다. 그들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에 그간 휴지 상태였던 연애 세 포가 다시 깨어난다. 특히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활약한 뒤 무대로 복귀한 배우 전미도의 연기가 정말 사랑스럽다.

멀지 않은 미래 서울의 한 아파트에 인간은 없고 기계들만 가득하다.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쓸모없어 버려진 로봇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이곳 주민 '클레어'가 충전기를 빌리러 '올리버'를 찾으려 인연이 시작된다. 올리버는 옛 주인 '제임스'를 따라 레코드 플레이어, 재즈 잡지 등 아날로그를 좋아하고 그가 언젠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주인 바라기'다. 반면 클레어는 옛 주인들의 이별을 목도하고 상처받아 관계 맺음에 극히 냉소적이다. 서로 정반대 타입이지만 인간도 그렇듯 서로가 서로에게 시나브로 스며든다. 단둘이 제주도 여행을 떠나며 감정은 더욱 깊어진다.

달콤한 나날도 잠시. 이내 두 로봇은 클레어의 수명이 다해 간다는 잔인한 현실을 맞닥뜨린다. 사랑이 언제까지고 영원하기란 너무나도 힘든 일, 다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전미도(오른쪽)는 '클레어 자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능숙하게 연기한다.



홀로 남겨지는 게 두려운 남녀는 기억을 지워 지금까지의 행복을 없었던 셈 치기로 한다.

다시 충전기를 빌리는 장면이 펼쳐지지만 처음과는 조금 다르다. 둘은 정말로 기억을 지웠을까. 클레어가 어떤 것도 덧붙이지 않고 올리버에게 묻는다. “(우리) 괜찮을까요?” 올리버는 애뜻한 눈빛과 함께 클레어에게 답한다. “어쩌면요…” 무대 위층 피아노와 바이올린·비올라·첼로 선율이 이들을 축복한다. 그 순간 관객들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배우의 표정과 몸짓, 그리고 소리가 극을 이끈다. 감정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로봇부터 사랑에 설레고 이별에 괴로워하는 로봇들까지 모두 담아내야 한다. 전미도는 ‘클레어 자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이를 능숙하게 해낸다. 이 작품으로 2018년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코로나19 불황 속에서도 그가 출연하는 회차는 연일 매진이다. 강혜인·한재아 등 다른 클레어들이 출연하는 회차도 파급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올리버는 정문성·전성우·양희준이 연기한다.

도덕과 윤리는 절대적인 것일까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 | 6. 16~9. 6 |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
상연시간 110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왈츠가 흐르는 첫 장면부터 탐미주의적 결말까지 어느 하나 버릴 데 없다. 충격적 내용 전개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극의 강력한 카리스마에 사로잡힌 관객들의 눈과 귀는 내내 무대를 향해 있다. 이보다 더 매혹적인 작품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고등학교 수학 교사 엘레나 세르게예브나의 생일날 제자 네 명이 그녀의 집을 찾는다. 랄라와 빠샤, 비짜, 그리고 발로자는 와인과 선물, 꽃다발을 건네며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의 생일을 축하한다. 엘레나는 기뻐하지만 학생들 속내는 다르다. 그녀를 쫓아내 수하시험 답안지가 보관된 학교 금고 열쇠를 받아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인사치레도 잠시, 이들은 본론으로 돌입한다. 교육자 엘레나는 열쇠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거부한다.

그녀를 굴복시키기 위해 학생들은 갖은 방법을 동원한다. 아픈 노모를 위한 의료진 제공을 미끼로 내거는가 하면, 랄라 등은 절박한 상황을 드러내며 동정심도 유발한다. 몸을 수색하며 수치심을 주거나, 집 안을 어지르는 등 행패도 서슴지 않는다. 엘레나는 계속 저항하지만 점차 정신이 붕괴돼 간다.

그 과정에서 양쪽은 ‘어떤 삶이 옳은지’ 치열하게 논쟁한다. 엘레나는 도덕과 윤리를 역설하지만 학생들은 “공허하다”고 비판한다. “도덕은 극히 인간적이고 상대적”이라며 “잘 살기 위해선 비열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상



연극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 인물들은 ‘어떤 삶이 옳은지’ 논쟁하며 극한 대립한다.

을 깨고 이들의 논담은 백중세를 이룬다.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소포클레스, 레프 톨스토이, 헤르만 헤세 저작들이 각자의 논리를 위해 동원된다.

극은 흔해빠진 권선징악 도식을 거부한다. 엄존하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며 가치판단을 관객의 몫으로 돌린다. 무대를 사이에 두고 객석이 양쪽에서 마주 보게 한 배치도 이를 거든다. 특히 선연한 핏빛 조명 아래 랄라가 울부짖는 마지막 대목은 미학적으로도 탁월하다. 전작 뮤지컬 〈데미안〉에서도 호연한 배우 김주연은 여기서 더욱 깊어진 감정을 꺼내 든다.

‘욕망의 화신’ 발로자도 자못 매력적이다. 내적 갈등을 겪는 다른 이들과 달리 자신의 목적을 향해 일관되게 나아간다. 관객들은 그런 발로자를 욕하면서도 그에게 빠져든다.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의 주인공 ‘프랭크 언더우드’를 연상시킨다. 배우 이아진이 랄라를 나눠 맡는다. 엘레나는 우미화·정재은·양소민이, 발로자는 박정복·김도빈·강승호가 연기한다.

글 서정원_《매일경제》기자 사진 제공 CJ ENM, 아이엠컬처

한국 미술사를 수놓은 의미 있는 명품

전시 <새 보물 납시었네, 신국보보물전 2017-2019>와
<시대를 보는 눈: 한국근현대미술>

우리가 “명작·걸작” “의미 있는 작품”이라 하는 예술품을 많이, 또 평소에는 쉽게 접하기 힘든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두 전시회다. 두 전시의 출품작은 역사적·미술사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문화재(고미술품)이거나 훗날 문화재가 될 만한 근현대미술품이다. <새 보물 납시었네...>엔 삼국~조선 시대까지, <시대를 보는 눈...>엔 20세기 초부터 최근까지의 예술품이 각각 나와 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 미술사를 관통하는 작품들이다. 어느 전시장부터 찾든 두 전시를 함께 엮어 보기를 권한다. 1,500여 년 한국 미술사를 수놓은 의미 있는 명품들을 감상하고 이해하고 또 그 아름다움에 퐁당 빠질 수 있다.

※이번 호에 실린 공연·행사 등의 일정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신국보보물전> 전시 중 심사정의 <축전도권>과 이인문의 <강산무진도> 전시 모습

한국의 국보와 보물을 한자리에

<새 보물 납시었네, 신국보보물전 2017-2019> | 7. 21~9. 27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제목에서 보듯 2017~2019년 사이에 국가가 지정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재인 국보·보물 196점이 전시장을 가득 채웠다. 보존 문제가 까다로운 국보·보물이 이렇게 대규모로 한자리에서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전시장은 크게 3부로 구성됐다. 1부는 한국사를 정리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기록 문화유산이다. 고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역사를 고려 시대에 기록한 <삼국사기>(국보 제322-1호)와 <삼국유사>(국보 제306-3호)는 물론 조선 태조부터 철종까지 470여 년의 역사를 담은 <조선왕조실록>(국보 제151호) 등이다. 조선 왕실 행사를 기록한 기록화, 사대부의 초상화도 나와 있다. 이어 2부는 고려 청자, 우리에게 익숙한 조선 시대 유명 회화와 서예 작품이다. 청자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청자인 <청자 순화4년명 향아리>(국보 제326호), 붓을 꽂는 붓꽃이면서 빼어난 조형미가 돋보이는 <청자 투각연당초문

붓꽃이>(보물 제1932호) 등이 대표적이다. 산수화와 풍속화 등 조선 시대 대표적 화가들인 정선·김홍도·신윤복·김득신·이인문·심사정을 비롯해 김정희·이광사 등의 작품도 있다. 주로 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품이다(간송미술문화재단 소장품은 3주 단위로 교체 전시돼 세부 일정을 전시장 측에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윤복의 <미인도>는 8월 12일~9월 3일까지만 전시된다). 3부는 불상과 불화·공예 등 불교문화재다. 가장 오래된 백제시대 사리장엄구이자 정교한 공예 기술이 빛나는 <부여 왕흥사지 출토 사리기>(국보 제327호)를 비롯해 고려 불화인 <고려 천수관음보살도>(보물 제2015호), 조선 시대 찬불가인 <월인천강지곡 권상>(국보 제320호) 등이 출품됐다. 전시장에는 체험 행사도 마련돼 있다.

고미술에 관심이 있다면,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이 마련한 <고미술 소장품 특별전>도 둘러볼 만하다. 고려 불화와 조선 달항아리 등 보물 4점을 포함해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의 도자류와 회화, 각종 장신구를 포함한 갖가지 재료의 공예품 등 모두 1,500여 점이 선보이고 있어서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의 <시대를 보는 눈: 한국근현대미술> 전시 전경

한국의 근현대미술 작품을 한자리에

<시대를 보는 눈: 한국근현대미술> | 8. 4~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우리나라 근현대미술 120년 역사를 이야기하며 빼놓기 힘든 주요 작품들의 전시다. 지난 8월 초 개막, 상설전으로 마련돼 있다. 190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제작된 작품자들은 모두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술사적 의미 등에 따라 수집한 소장품들이다.

과천관 3층과 2층·회랑에 마련된 전시회는 300여 점의 작품과 관련 자료 200여 점으로 구성됐다. 19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시대 흐름을 따라 작품과 관련 자료를 관람할 수 있도록 동선을 짜 우리 근현대미술의 주요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전시의 시작인 1900년대 초는 전통미술의 급변과 더불어 이 땅에 유화가 도입된 시기다. 1911년 작품인 채용신의 <전우 초상>이나 서양화가 1세대인 이중우의 <루앙 풍경>(1926) 등이 대표적 전시품이다. 새로운 표현이 나타나는 1930~1940년대 작품으로는 이인성의 <카이유>와 이대원의 <딸>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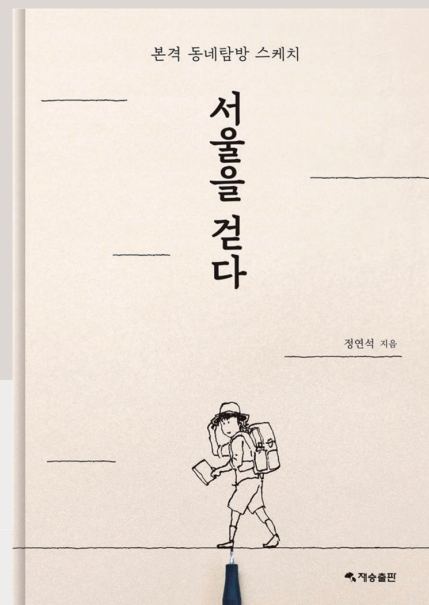
해방 공간과 6·25전쟁 전후인 1950년대 시기는 전쟁의 참사를 다룬 작품들이 주목되는데, 이중섭이 6·25전쟁으로 제주도 피난 생활을 할 당시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애들과 물고기와 게>(1950년대) 등을 만날 수 있다. 현대미술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1960년대부터 1980년대는 다양한 표현 양식의 실험이 이어졌다. 서구의 앵포르멜 경향 작품을 비롯해 최근에 다시 주목받은 단색조 경향의 작품, 극사실회화 등이다. 특히 민중미술과 한국화의 새로운 시도를 대변하는 작가들의 대표작도 이번 전시장에 대거 나왔다. 이어 활발한 국제 교류가 시작된 1990년대와 2000년대로 전시는 계속된다. 완성된 결과물보다 과정이나 상황·개념이 작품에 중시되는 개념 미술을 비롯해 예술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는 다원예술 등 현대미술을 보여주는 다양한 장르 작품을 선보인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상설전은 서울관에도 있는데, 역시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품 50여 점으로 구성된 압축적 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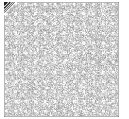
글 도재기_<경향신문> 선임기자 사진 제공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어느 정원과 길목으로의 초대

책 《화가들의 정원》과 《서울을 걷다》

“라떼는 말이야, 마스크 없이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도 가고 그랬어.”
인류가 들도 보도 못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함께
살아가게 된 지 벌써 수개월이 지났다. 마스크 없이는 집 밖 어느 곳도 마음
편히 나갈 수 없는 시대. 그냥 이대로 마스크와 영영 이별하지 못한다면 언
젠가 ‘라떼는...’이라며 자유롭게 해외여행 다니던 과거를 말하는 날이 올
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갈 수 없는 정원으로의 초대

《화가들의 정원》 | 재키 베넷 지음, 김다은 옮김 | 샘터

《화가들의 정원》 저자는 답답한 실내에 갇힌 우리를 화사한 정원으로 초대한다. 클로드 모네, 오귀스트 르누아르, 폴 세잔, 살바도르 달리, 프리다 칼로 등 전 세계 유명 화가들이 소유했던 정원 속에서 그려낸 계절의 얼굴을 다양한 해설과 함께 보여준다. 책에 소개된 화가들의 정원, 텃밭, 나무숲 등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어 누구나 둘러볼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지금은 갈 수 없는 곳이라 더욱 동경을 품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물에 비친 하늘, 연꽃 등을 담은 〈수련〉 연작을 남긴 모네의 '지베르니 정원'은 특히 인상 깊다. 프랑스 파리에서 기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잡은 지베르니 정원은 모네의 뮤즈와도 같은 대상이었다. 그가 생애 마지막으로 남긴 100여 점의 작품은 지베르니 수경 정원에서 탄생했다. 모네는 작품을 위해 아프리카 수련, 열대 수련, 멕시코 수련 등 다양한 수련 종류를 정원의 연못에 심었다. 또 작품에 담을 꽃을 구해 집 바로 앞 정원인 르클로노르망에 심었고, 이 정원은 계절마다 달라지는 색의 향연을 이루며 모네를 색채의 대가로 만들었다.

1880년대부터 1920년대 스칸디나비아 예술가들의 만남의 장소로 통한 덴마크 바닷가 마을 스카겐에서 탄생한 그림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든다. P.S. 크뢰이어의 〈만세, 만세, 만세!〉는 푸른 정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축배를 들고 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 요즘 같은 시절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라 묘한 해방감마저 자아낸다. 스카겐에 머무른 화가들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마을의 풍경과 노동하는 마을 주민들을 그렸다. 높은 하늘, 모래언덕, 한적한 해변, 아름다운 숲속의 꽃밭 등은 화가들에게 끝없는 영감을 주는 곳이었다. 화가 미카엘 앙케는 "이곳 스카겐에 이르러 손길이 닿지 않은 고유한 세상을 거닐어본다"는 말을 남겼다.

초현실주의와 팝아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살바도르 달리도 스페인 포르트리가트의 집을 사들여 예술혼의 아지트로 삼았다. 달리는 자신의 작품을 이해하려면 포르트리가트 지역을 이해해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달리는 그의 아버지가 태어난 이 지역에 1930년 작은 집을 샀다. 여러 차례에 나누어 1헥타르 이상 땅을 사들인 달리는 정원에 수영장과 작

은 신전까지 설계했다. 이후 아내 갈라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1969년 푸블 지역의 중세 성을 매입하기에 이른다. 달리가 어떤 땅과 건축물을 사들이고,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그의 그림은 물론 삶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

그래도 아쉬움을 달랠 수 있다면

《서울을 걷다》 | 정연석 지음 | 재승출판

서울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들조차 자신 삶의 반경에서 먼 지역이라면 같은 서울 테두리에 있더라도 다른 도시처럼 낯설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의 법정 동은 무려 467개. 마음먹고 나서지 않는다면 서울에서 수십 년을 살았더라도 미처 가보지 않은 곳이 많으리라.

그래서 저자는 필통과 종이를 들고 나섰다. 은평구 대조동, 종로구 혜화동, 서대문구 연희동, 중구 정동과 을지로, 성동구 성수동, 강남구 논현동, 영등포구 문래동 등. 이름만 들어도 웬지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사연이 커져이 자리 잡고 있을 것만 같은 동네를 골라 갔다. 책은 저자의 드로잉을 통해 글 반, 그림 반으로 채웠다.

첫 장은 외지에서 서울로 올라온 저자가 처음 살게 된 동네인 대조동의 대장간, 조용한 동네와 달리 불야성을 이루던 불광역 인근 등에 대해 그렸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동으로 쪼개져 있다는 종로구에서는 조선 시대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이 있었던 명륜동에서부터 사직동 재개발 이슈까지 다양한 면을 건드린 점도 인상 깊다. 한때는 세상의 모든 컴퓨터가 모여 있는 것만 같았던 용산구 한강로동 전자상가, 옷 장사로 그야말로 불야성을 이뤘던 동대문운동장 앞(중구 을지로 6, 7가), '망리단길'의 시작이 된 마포구 망원동의 풍경도 정겹다.

서울의 오래된 풍경을 간직하고 있는 책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구도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서울의 얼굴은 천편 일률적인 아파트가 아니면 고압적인 고층 빌딩일 가능성이 높다. 굳이 저자가 다닌 서울 골목골목이 아니더라도,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동네 주변을 애정 어린 눈으로 한번 더 바라보게 하는 책이다.

글 최고야, 《동아일보》 기자 사진 제공 샘터, 재승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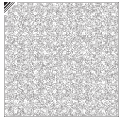
1980년대의 마지막 경험, 유치장



마포 유치장에서(왼쪽부터 유시춘, 이경자, 윤정모)

나는 그날까지 경찰서는 물론 그곳의 유치장이라는 곳도 가본 적이 없었다.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 열패감도 있었다. 연이은 군부독재 정권 시절, 집시법 위반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가서 신문에 얼굴이 나오고 또 서빙고나 남산으로 잡혀가 고문을 당한 경험을 풀어놓는 선배나 동료 작가들을 먼발치에서나마 바라보던 때, 팬스레 마음에 피어오르던 차가운 열등감과 후끈한 부러움을 지병처럼 가지고 있었다. 그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삶으로 보였다. 그러니 나는 늘 당당하지 못하다는 자괴감에 갇혀 있었다. 다만, 그저 누가도 피하는 데 돈을 좀 내라고 하면 얼씨구나 좋아서 분수를 잊곤 한 게 그나마 위안이 됐다. 이런 나에게 한국작가회의는 거의 정신신경증 치료소 같았다. 그곳에서 누군가의 석방을 위한 철야농성을 한다고 참여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순식간에 마음이 우쭐해졌다.

내면에 이런 울퉁불퉁한 무의식과 의식의 응어리와 갈피들을 가진 나. 드디어 소원 성취의 행운을 얻는 일이 생겼다. 노태우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지난 1989년 3월이었다. 작가회의는 2월 17일 북한의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로부터 지난해 제안한 '남북작가회담'에 동의한다는 공개서한을, 통일원을 통해 전달받았다. "...작가들은 시대와 민족의 선각자이며 선도자입니다..."라는 문장이 들어 있는 편지였다. 바로 다음 날 정레이 사회에서 고은 시인을 남북작가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3월 4일,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에 3월 27일 혹은 그 직후에 예비 회담을 열 것을 제안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3월 16일, 조선작가동맹은 그날 오전 10시에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기 대표 5명으로 예비접촉을 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사이, 그러니까 3월 20일 황석영 소설가가 북한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했고, 3월 25일에는 문익환 목사가 평양을 방문했다. 한국작가회의에 대한 여론이 싸늘했다. 정국은 공안 통치로 치닫고 있었다. 분단 이후 처음인 남북작가회담은 가장 나쁜 시기에 열리는 셈이 됐다. 이날 오전 10시, 남쪽 대표단 5명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 30명과 전세버스에 올랐다. 그 30명 중에 나도 끼어 있었다.

버스는 끝내 판문점까지 가지 못했다. 파주 운천리의 여우고개에서 미리 바리케이드를 치고 대기하던 경찰과 전경에 의해 저지됐다. 버스는 서울로 방향을 틀었다. 지금은 거의 기억나지 않는데 아마 공권력이라는 국가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더불어 그것에 저항한다는 낮은 단계의 공명심을 함께 느꼈을 것 같다.

우리를 태운 버스는 익숙한 거리로 들어서서 마포경찰서 마당에 멈추었다. 그때 내 눈에는 우리가 모두 패배의 옷을 입은 승리자로 보였다. 하지만 난생처음 닭장차를 타고 경찰서 마당에 부러진 나는 솔직히 정신이 혼미했다. 선생님들과 동료 후배들이 30명이나 됐지만 공포심은 내 안에 있었다. 곧 누군가가 우리를 유치장으로 몰았다. 지하였던 것 같은 그곳. 시멘트 계단 아래는 별이 들지 않아 음산했다. 마치 봄기운을 피해 구석으로 물러가 있는 겨울의 누추한 독기가 느껴졌다.

맨 앞장에 서서 남이 보면 거의 씹씹했을 터. 그러나 겁이 나서 매를 먼저 맞으려는 마음뿐이었다. 여기저기서 기웃거리는 시선이 느껴졌고, 나는 비어 있는 커다란 빈방으로 쩍싸게 들어가 구석에 앉았다. 그런데 곧, 경찰이었던가? 내게 나오라고 손짓했다. “누나, 여긴 남자 방이야!” 후배가 큰소리로 말했다. 유치장에도 남자 방 여자 방이 따로 있구나, 속으로 생각하고 비어 있는 옆방으로 들어갔다. 크기가 작았고 여자는 셋이었다. 윤정모, 유시춘, 나. 모두 소설가였고 두 살씩 나이가 터울 졌다.

3월 하순의 유치장은 추웠다. 쫓기는 겨울이 다 그곳에 모여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노래하고 구호를 외치고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고 잠을 잤다. 여기저기서 방문했고 먹고 마실 것도 가져다줬다. 나는 발이 시려서 잠을 잘 수 없었다. 누군가에게 양말을 부탁했다. 깔끔한 윤정모와 유시춘은 발을 잘 씻고 와서 새 양말을 갈아 신었다. 하지만 게으른 나는 잘 씻지 않았고 신고 있던 양말 위에 그냥 덧신었다.

낮에는 경찰서에서 조서도 썼다. 하룻밤을 자고 나자 집에 있는 가족들이 생각났다. 영문 모를 아이들이 걱정됐다. 우리가 유치된 방 앞에는 경찰이 보초를 섰다.

자료를 보니 우리는 유치장 구금 54시간 만인 3월 29일 오후 5시경에 훈방 조치됐다고 한다. 그날 풀려난 나는 마포에서 광화문을 거쳐 종로까지 하염없는 기분으로 걸었다. 1970년대 유신 정국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김지하 시인이 출소한 뒤에 “하염없이 걸었다”는 말을 먼발치에서 들었는데 그날 걸으면서 사형수 김지하 시인의 마음을 생각해 본 기억이 난다. 집에 왔을 때 어린 두 딸이 무척 반겼다. 아무것도 모른 채 뉴스에서 닭장차를 탄 엄마를 보았다고 했다. 가정이란 집의 편안함과 함께 마음으로부터 어떤 정체감이 풀린 기분을 느꼈다. 반공법 범법자를 안다거나 수배 중인 데모 주동자를 감취켰다거나 하면서 늘 아슬아슬했던 경계, 그러니까 기회주의적 태도에 대한 자괴감이 씻긴 기분이었다.

이 시대의 푸르고 맑고 따뜻했던 문인들, 우리 곁을 많이 떠났다. 그해 4월 27일 밤, ‘민족의 문학통일의 문학’을 강연했던 김남주 시인. 우주 어딘가에서 채광석·조태일·고정희 등과 어울려 술 마시고 노래 부를까?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다. 세상에 유일한 분단국가 국민이 된 날, 그리고 내 삶의 1980년대도 끝났다.

글·사진 제공 이경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소설가

여러모로 멀어지는 여행

여행 제한 시대의 여행 콘텐츠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2020년이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마트와 백화점에선 벌써부터 추석선물세트 예약을 받고 있으며,

근교로 여름휴가조차 가지 못한 채로 2020년의 여름이 저 멀리 떠나고 있다.

일상에서, 뉴스에서, 지겹도록 듣고 있을 터라 이 지면에서는 되도록 피하려 했지만

다시금 지역사회를 초토화한 이 역병에 대해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여행 콘텐츠의 변화는 눈에 띈다.

코로나 시대, 우리에게 여행은 그냥 먼 얘기가 되거나, 가더라도 ‘서로 멀어지는’ 형태여야 가능한 듯하다.



‘캠핑카’와 비대면·자급자족 여행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을 방송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지 않은 업계가 없겠지만, 그중 대면·모객을 기본으로 하는 여행, 전시, 공연, 영화 업계의 타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반면, 집에 콧 박혀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 덕분에 넷플릭스, 왓차 등의 월정액 주문형 비디오(SVOD) 서비스와 유튜브의 이용률은 경천 뛰었으며, TV와 모바일로 영상 콘텐츠를 접하는 이용자 수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렇다면 지상파방송 상황은 어떨

까? 야외 활동이 줄어들었으니 작년 대비 동 기간에 TV 시청률 역시 상승했다. 학교나 학원을 가지 못하고 홈스쿨링을 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10대 시청자가 늘었고, 봄철 나들이 때문에 TV 시청률이 하락하는 3·4월에도 올해에는 작년 대비 TV 시청률이 10% 상승(시청률 조사 기관 닐슨코리아 자료 기준)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홍수 등의 재난 상황에 뉴스 시청률은 크게 오른 반면 드라마나 예능 프



로그래의 시청률 상승 폭은 크지 않다. 특히 2030 시청자는 같은 드라마를 보더라도 TV 플랫폼보다는 넷플릭스·웨이브·왓챠 등을 이용하며, 사회적 전망이 불투명하고 마음이 어두운 시기에 복잡하고 어두운 내용의 콘텐츠는 꺼리는 현상이 시청률에 반영됐다. 집중력을 유지해 70분간 이야기를 따라가야 하는 복잡한 드라마보다는 짧은 스낵 콘텐츠나 이해하기 쉬운 예능의 조회수와 시청률이 더 높았다. 미래도 충분히 어두컴컴한데 미디어에서까지 복잡하고 어두운 내용을 접하고 싶지 않은 심리적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다.

코로나 시대의 여행 방송

미디어에서도 야외 활동을 권장해선 안 되는 상황이기에 아예 폐지되거나 방송 내용을 바꿔야만 하는 예능 프로그램도 속출한다. 특히 여행 방송이 그렇다. 가성비 좋은 해외여행을 소개하던 KBS <배틀 트립>은 코로나19 이후 국내 여행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내용을 바꿨지만 지난 4월 종영했고, tvN의 <더 짠내투어> 역시 제주·부산·동해 등 국내 도시를 소개하다가 8월 종영했다. 낯선 곳을 갈 때마다 방송 하단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수칙을 지켜 촬영했으며 마스크는 방송 촬영 중에만 잠시 벗었다”는 자막을 넣어야만 했고, 시청자 게시판에는 이 시국에 굳이 방송을 해야 하느냐는 지적까지 올라왔다. 더구나 출연진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시청자는 사람을 변별할 수도 없고, ‘현실을 떠난 일탈’이라는 방송 취지도 퇴색돼 버린다. 마스크를 하고 국내 여행지를 다니며 호들갑스러운 리액션을 쏟아내 봤자 그게 재미있을 리가.

그렇다고 예능 소재로 자리 잡아버린 여행을 포기할 순 없는 노릇. 그래서 제작되기 시작한 것이 ‘여행을 하긴 하되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정주하는 캠핑 방송이다. 떠나서 정주하는 삶.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최근 만들어지는 예능 프로그램은 비대면의 정주를 지향한다. 성동일·여진구가 출연하는 tvN <바퀴 달린 집>은 캠핑카를 타고 하루 한 곳에 머물면서 집주인의 친구들을 캠핑카로 초대한다. 있을 건 다 있는 럭셔리 카라반을 뒤에 싣고 주변에 아무것도(특히 사람) 없는 벌판이나 해안가에 짧게 정주하며 이들은 ‘힐링’을 취한다. 정유미와 최우식이 출연하는 tvN <여름방학>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어린 시절 여름방학에 할머니 댁에 머물 듯이 바닷가 시골 마을 집 한 채를 빌려 단기간 머물며 밥을 해 먹고 개를 키우며 서핑을 한다. 이런 유의

힐링 프로그램의 원조 격이라 할 수 있는 <삼시세끼>의 변형인데, 코로나19 시기에 돌아온 tvN <삼시세끼-어촌편 5>는 심지어 무인도에 들어가 완전히 자급자족하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했다. 첫 방송부터 이들은 이 섬은 주민이 한 명도 없고, 슈퍼마켓조차 없다고 설명한다.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캠핑 취미를 공개한 배우 이장우와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서 가족과 캠핑을 떠난 송창의 역시 방송에서 자신의 캠핑카를 자랑했다. 과거 액티브한 라이프스타일, 자연 속에 들어가는 고즈넉한 취미가 캠핑이었다면 요즘의 캠핑은 도심, 사람, 바이러스와의 단절까지 아우른다. 이들은 여행을 떠나서 새 친구를 사귀지 않는다. 캠핑카와 무인도, 시골집에는 오직 ‘원래 알던 친구나 내 가족’만이 초대받는다. 이제 여행은 새로운 풍경, 낯선 사람을 사귀게 해주는 취미 생활이 아니다. 비대면 시대에 떠나기 위해선 자급자족이 가능한 캠핑카가 필요하며 이는 옆 텐트와 나를 차단할 수 있는 ‘비대면’ 공간으로 활용된다. 코로나 시대의 여행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처럼 인적이 없는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오직 자연만을 벗으로 삼으며 ‘대중’과 나를 차단하는 삶에 가깝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야만 그나마 안전한, 비대면을 적극 권장하는 코로나19 시대에는 여행마저 단절이 기본이다.

반면 유튜버들은 저렴한 방법으로 여행 콘텐츠를 대체한다. 여행을 주제로 영상을 찍어오던 유튜버들은 어쩔 수 없이 국내 여행지를 소개하거나, 웃기거나 신기한 도전을 해야만 조회수를 유지할 수 있다.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은 저렴한 국내 여행지를 소개하던 끝에 허경영의 저택인 ‘하늘궁’을 소개해 조회수 75만을 기록하기도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제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진작에 공표했다. 영국의 면역 전문가 마크 윌포트 박사는 “어떤 형태로든 영원히 코로나는 인류와 함께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듣자마자 웬 살벌한 고백인가 싶다. 이제 됐으니까 그만 나를 떠나줘 코로나야, 너와 더는 함께하고 싶지 않아, 라고 이별을 고했음에도 이 스토커는 너무나 끈질겨 영원히 인류와 함께하겠노라 선언한다.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떠나는 여행은 당분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여행 소재의 콘텐츠마저 이제는 ‘단절’과 ‘차단’을 말한다. 캠핑카와 카라반을 빌릴 수 없고, 생업을 포기하고 오두막으로도 떠날 수 없는 사람에게 코로나 시대의 여행은 어떤 방법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글 김송희, <빅이슈코리아> 편집장

‘봄의 교향악’이 우리를 위로한 여름

〈2020 교향악축제 스페셜〉 리뷰



멀리서 불타는 헛간을 바라보는 듯했다.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19로 취소되는 공연들은 ‘탁탁’ 소리를 내며 재가 되고 있었다.
매년 4월이면 열리던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체념의 목록 위에 적어두었던 ‘봄의 교향악’이 여름에 돌아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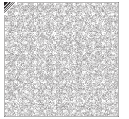


바이올리스트 송지원과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의 협연 장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총 14회의 일정으로 〈2020 교향악축제 스페셜〉이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펼쳐졌다. 전 공연은 아니지만 개막 공연과 폐막 공연을 비롯한 공연을 직접 보며 여러 악단과 협연자들을 비교 감상할 수 있었다. 이번 축제에서 인상 깊었던

공연을 되짚어본다.

7월 28일 개막 공연은 명실상부 국가대표 오케스트라인 서울시향이 장식했다. 부지휘자인 윌슨 응이 지휘봉을 잡았다. 김정원이 협연한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 1악장에서 현악군과 피아노가 밀물과 썰



물처럼 움직였다. 명상적이고 투명했던 2악장에 이어진 3악장은 격정적이었다.

2부의 슈만 교향곡 2번 1악장에서 어슴푸레한 음의 안개가 열게 깔렸다. 본격적으로 각 악기군이 합류하는 곳에서 음의 농도가 짙어졌고 다이내믹한 박력이 소용돌이쳤다. 윌슨 응은 복잡한 악구에서도 명쾌하게 역할을 분배했다. 2악장에서 즉흥성이 강조되면서 곡의 흥미는 점입가경이었다. 3악장은 비감과 연민으로 젖었다. 앞의 두 악장에 비해 체계가 잡히고 악상이 확실해졌다. 4악장은 웅장하고 응집력 있게 시작했다. 오보에가 가냘프게 울려 퍼지는 부분도 인상적이었다. 정열적인 지휘는 막판까지 치고 올라가다 끝을 맺었다.

앙코르인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서곡 역시 즉흥성과 역동성이 돋보였다. 말러 지휘 콩쿠르에서 3위에 입상하며 한결 노련한 모습으로 탈바꿈한 윌슨 응의 존재감이 빛났다.

명곡에 다양한 표정을 입혀 더욱 풍성했던 축제

7월 29일 김대진이 지휘하는 창원시향의 연주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명곡 중의 명곡인 교향곡 5번 〈운명〉을 연주했다. 너무나 유명하지만 의외로 연주하기 까다로운 작품으로 손꼽힌다. 2000년대 이후 원전 연주의 영향으로 지휘자들이 쾌속 템포를 많이 채택하곤 한다. 올해 발매된 테오도르 쿠렌치스의 음반에서도 그런 기조가 유지됐다. 하지만 김대진과 창원시향의 연주는 이런 흐름과 반대였다. 유유자적하듯 곡곡 놀러뛴으며 〈운명〉을 해석했다. 오토 클렘페러와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떠오르기도 했다. 2악장 말미에 음악이 막 피어나는 부분과 4악장 피날레에서 현과 관이 소용돌이칠 때 감탄이 절로 나왔다. 전날 세부를 만들어갔던 윌슨 응과 대조적으로 김대진 지휘자는 ‘큰 음악’을 만들었다.

7월 30일 김경희가 지휘한 전주시향은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6번 〈비창〉을 연주했다. 이 역시 명곡으로 수많은 스타일의 연주를 접한 청중이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작품이었다. 김경희는 과감하게 직선적인 해석으로 곡을 전진시켰다. 세부와 결가지를 모두 잡는 것을 포기한 대신 곡의 웅이를 점차 확대하며 화끈한 표현에 집중했다. 다양한 방향과 색깔의 연주를 볼 수 있다는 건 교향악축제의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7월 31일 최희준이 지휘한 수원시향이 베토벤 교향곡 7번을 연주했

다. 1, 3, 4악장의 들뜬 분위기에 둘러싸인 우울한 2악장 알레그레토가 잘 들어왔다.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가 나직하게 그어댄 슬픔이 오케스트라 전체를 출렁이게 했다. 앙코르 곡인 모차르트 〈후궁 탈출〉 서곡에서도 최희준은 터키풍 타악의 향연에 둘러싸인 먹먹한 비감을 잘 표현했다.

코로나 속 빛을 발한 각양각색 오케스트라의 향연

8월 1일 코바체프가 지휘한 부천필의 무대는 협연과 본공연 모두 만족스러웠다. 작년 차이콥스키 콩쿠르 3위 입상에 빛나는 김동현의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은 특유의 꿈꾸는 스타일로 만족감을 안겨줬다. 글린카의 〈루슬란과 류드밀라〉 서곡과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에서 부천필의 음색을 재발견했다. 목관과 현악군이 조응하며 내는 소리가 청아했다. 선명하고 뚜렷한 표현으로 실황의 스케일감을 실감케 해주었다.

8월 4일 성기선이 지휘하는 강남심포니는 글라주노프의 〈사계〉 중 ‘여름’과 〈레이몬다〉 3막 ‘간주곡’을 아가자기하게 버무려냈다. 바이올린 협연의 송지원 역시 이번 축제에서 기억될 이름이었다. 글라주노프 바이올린 협주곡 연주 중 은빛으로 빛나던 고음을 관객들은 잊기 힘들 것이다. 협주곡 이후에도 힘이 남은 듯 비교적 긴 이차이 바이올린 소나타 6번을 앙코르로 선사했다. 2부에 연주한 브람스 교향곡 2번의 피날레는 환희와 자유와 즉흥이 분출하는 장관이었다. 스트라빈스키 〈불새〉의 관현악 모음곡 중 자장가부터 피날레까지를 앙코르로 연주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변하는 음의 루미나리예를 연출했다. 악장 이마리솔의 활약이 두드러져 보였다.

8월 10일 마지막 공연은 KBS향이 맡았다.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던 지중배가 지휘봉을 잡았다. 나폴대는 머리카락에 뒤통치를 들어가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그의 모습은 지휘의 창조성을 표상하고 있었다. 이상은이 협연한 엘가 협주곡 반주도 근사했고 차이콥스키 교향곡 4번은 찜찜 찜찜 호쾌하게 울려 퍼졌다.

코로나19로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하는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축제였다. 이 연속 무대가 잘 치러진 뒤 공연계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각양각색의 오케스트라들이 저마다 땀 흘려 준비한 흔적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이 축제가 내년에도 무사히 치러지길 기원한다.

글 류태형_음악칼럼니스트 사진 제공 예술의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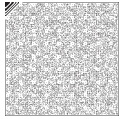
악해서 끝내 악해지는 마음들

김의석 감독의 <죄 많은 소녀>



덜 자란 나이, 월경대던 시간 속에 갇혀버린 시절이 있다.
다 지나간다고, 모두 겪는 과정이라고, 성숙해질 거라고, 터널 끝을 건너간 사람들은 말한다.
하지만 막상 터널 속에 갇힌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선이라고 생각하는 말들이 악의가 되어 떠도는, 나를 지키려는 거짓말은
타인에게 칼날이 되고야 마는 미성숙한 시간이 지옥 같다.
마치 나를 향해 끼얹어질 것 같은 물 한 잔이 얼음처럼 차가울지,
화상을 입힐 만큼 뜨거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





덜 자란 시간 속 우리

같은 반 친구 경민(전소니)의 갑작스러운 실종으로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영희(전여빈)는 가해자로 지목된다. 딸의 실종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경민의 엄마(서영화),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형사(유재명),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는 담임 선생님(서현우), 그리고 학교 친구들 모두 영희가 가해자라고 의심하며 잔인하게 군다. 그러다 실종된 경민의 시신이 발견된다.

김의석 감독의 장편 데뷔작 〈죄 많은 소녀〉는 약해서 끝내 약해지고 마는 사람들의 표정을 소녀의 실종이라는 사건 속에 담아낸다. 영화 속 사람들은 영희를 가해자로 지목하며 죄의식에서 벗어나려 한다. 이 과정에서 방관자들은 동조자 혹은 가해자로 재빠르게 표정을 바꾼다. 경민의 죽음은 이들 삶의 한가운데 있지만 정작 경민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여러 사람의 입을 거치며 달라지는 이야기 속, 경계가 무너진 인물들을 통해 이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개개인의 적의가 얼마나 깊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감춰진 적의를 하나씩 드러내는 소녀들의 표정을 통해 김의석 감독은 죄의 값, 죄의식의 값, 그 값의 올바른 셈은 얼마인지 되묻는다.

늘 덜 자란 우리들의 시간 속에서 사람의 마음은 덜 익어 쏘아가 난다. 그래서 끝내 우리는 경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도, 끝내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은 영희의 선택이 진심인지, 유령처럼 떠돌며 수면으로 떠오르지 못한 소녀들의 사랑은 어떤 색깔이었는지 알 수가 없다.

죄의식의 표정

영화 속 사람들은 계속 마음과 가장 다른 표정을 짓는다. 죽은 아이에 대한 죄의식과 자신을 지키려는 이기심 사이에서,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진심과 가장 다른 표정을 지어 보이는 것이다. 선생들은 경민이 우울한 음악을 듣던, 원래 그런 아이였다고 편을 먹는다. 그리고 아이들은 손쉽게 뚝뚝 뭉쳐 영희를 가해자로 만들어 유령처럼 떠도는 죄의식에서 벗어나려 한다.

알고 보면 사실 어느 누구도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 경민의 죽음에 자신이 조금이라도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서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해줄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영희를 단죄하듯 폭력을 휘두른다. 그리고 자신의 폭력이 마치 정의라고 착각한다.

두려워서 비겁한 건 부모들도 마찬가지다. 영희의 아빠는 영희가 친구들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눈치챘지만, 영희의 처신을 탓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죄의식을 모른 척한다. 경민 엄마는 조금 더 비겁하다. 그녀는 온전히 경민의 죽음을 마주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끝내 죄를 덮어씌울 영희를 살려두고,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인다.

영희를 향한 적의와 폭력은 영희가 자살 시도를 하고 목소리를 잃은 후 손쉽게 사라진다. 아이들은 표정을 바꿔 영희를 응원한다. 그 과정에서 소녀들은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아 단죄한다. 김의석 감독은 영화의 도입부와 영화의 중후반부에 영희가 수어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준다. 도입부에는 자막 없이, 중후반부에는 자막을 넣었는데, 영희의 본심은 그렇게 목소리를 잃고 침묵한다.

사람들은 타인을 호되게 꾸짖어 자신의 죄의식을 감추고 위안한다. 〈죄 많은 소녀〉는 지긋지긋한 삶 속에 찾아온 한 소녀의 죽음과 끝내 살아 있는 주위 사람들을 통해, 이기심의 극악함과 죄의식의 나약함을 눈 돌리는 법 없이 끝까지 들여다본다.

감독은 소녀의 성장을 위해 소비되는 소녀라는 다수 성장영화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소녀를 이야기한다. 한 소녀는 그 긴 어둠을 끝내는 법을 먼저 알아챘고, 한 소녀는 계속 긴 터널 안에 갇혀 있다. 영화 속 영희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지나왔지만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한 뼘도 자라나지 않았다. 영희의 세계는 자라나는 세계가 아니라, 침잠하는 세계다. 바로 우리의 세계처럼….

〈죄 많은 소녀〉(2018)

감독 김의석

출연 전여빈(영희 역), 서영화(경민 엄마 역), 고원희(한솔 역), 전소니(경민 역)

글 최재훈_영화감독이 만들어낸 영상 언어를 지면 위에 또박또박 풀어내는 일이 가장 행복한 영화평론가.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근무하며 각종 매체에 영화평론과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2020 NAMSAN
ARTS
CENTER

이달의
시각예술
작가



남산예술센터 대 부 흥 성 회

9.2.-9.13.

월-금 19:30 | 토·일 15:00

※ 9.6.(일) 공연없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WEB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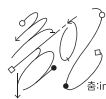
주머니 속 문학잡지 [비유]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책장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웹진에서 만나보세요!

view.sfac.or.kr



연극 전문 웹진 [연극in]은 연극을 다양한 감각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현장과 무대, 공연하는 예술가를 관객과 매개합니다.

webzine.e-stc.or.kr



[춤in]은 무용 전문 웹진으로 정보와 이슈를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무용계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choomin.sfac.or.kr



동화, 세상을 넓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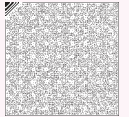


〈쓰다〉32호 포스터

최근 가나 출신의 한 방송인이 곤욕을 치렀다. 블랙페이스로 흑인을 흉내 낸 학생들의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그것이 인종차별 행위임을 지적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어떤 사람들은 블랙페이스 자체를 인종차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동양인 비하로 구설에 휘말렸던 그가 인종차별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반문했다. 그의 게시물이 학생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며 다른 시각에서 그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비난에 못 이겨 그는 결국 사과 글을 게시하였다.

내가 생각하는 혐오는 무색무취한 무엇이다. 외부인의 지적이나 비극적인 사고가 없는 한, 우리는 혐오의 악취도 색깔도 느끼지 못한다. 우리는 공기처럼 혐오를 들이쉬고 내릴 수 있는 장소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우리에게 편하다고 해서,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 특정한 문화나 취향에 대한 차별이 무작정 정당화될 수는 없는 일이다. 몰랐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같은 변명도 혐오를 혐오 아닌 것으로 바꾸지는 못한다. 침묵과 변명은 항상 편하고 안전하다. 그래서 굳이 정의를 이야기하겠다고 나서는 목소리가 귀한 것이다.

혐오를 부수면 세상은 넓어진다. 이번 호를 편집하며 느낀 것이다. 여성혐오를 문제 삼고, 팬덤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재고하며, 동성 간의 사랑을 인정하려는 목소리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타자도 다양해진다.



어렸을 땐, 시도 때도 없이 프리포즈를 했다. 소꿉놀이를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말이 막 나왔다. 하지만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푸른이조차도 그랬다. 부모님들은 축하도 불러주고 주례도 서주겠다면서, 꼭 한마디를 덧붙여 내 속을 뒤집어놓았다. ‘둘 중 하나가 남자였으면 결혼시키는 건데……’라고. 난 어른들이 불가능한 일을 말하듯 말끝을 흐리는 게 싫다.

조은비, <푸른 계절> 부분

<푸른 계절>은 반전 없는 평범한 사랑 얘기다. 그러나 남녀 사이에 있을 법한 흔한 연애 감정을 동성 간의 일로 바꾸어놓음으로써 이 이야기는 독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두 소녀의 사랑이 정말, 그렇게 이상한가? 기존의 연애 서사를 의도적으로 답습하는 동화가 여성과 여성의 사랑을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이처럼 낯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동성에게 사랑을 느끼는 어린이들이 자신을 혐오하거나 교정하려 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볼 만한 이야기가 훨씬 많아져도 좋을 것이다.

“네 말대로 아무도 몰라줄 수도 있지. 어쩌면 비아 누나들조차도 말이야. 하지만, 난 이 약속을 꼭 지키고 싶어. 팬클럽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을 안 지키л 순 없잖아. 약속을 안 지키л 순간부터 비아에 대한 내 진심이 없어지는 거나 다름없다고.”

전여울, <누가 비아를 응원하나> 부분

연예인에 대한 애정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는 사람을 ‘빠순이’라고 비하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연예인 ‘덕질’이 하나의 취미 생활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이제 우리는 ‘덕질’이나 ‘오타쿠’라는 단어를 남의 취향을 비하하는 데 사용하기보다, 몰두할 만한 취미를 가진 이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그럼에도 으레 문화와 예술에 A급, B급 따위의 꼬리표를 붙이고, B급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전여울 작가는 주류 아이돌이 되지 못한 ‘비아’라는 그룹을 함께 응원하고 지지하는 과정을,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두 학생의 ‘덕질’을 통해 그린다. 이 동화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고 용기 있다. 타자를 존중하는 한에서 모든 취향이란 숨길 일도 부끄러울 일도 아니라는 것.

남성은 독서를 통해 외부 세계로 나갈 자극을 받지만, 여성은 독서를 통해 내면적인 탈출구를 얻는다.¹ “여자는 언제나 욕망에 이끌리지만 행동규범에 의해 구속받”²기 때문이다. 하지만 SF는 현실의 문법을 전복할 수 있는 장르이다.

한윤정, <여성서사의 장으로써 SF가 주는 자유> 부분

아동 청소년 문학이 세계의 밝은 면만을 늘 조명한다면 소수자를 억압하는 ‘행동규범’은 다음 세대로 반성 없이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 다채로운 목소리를 들려준다면, 우리의 ‘현재’가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혐오와 고정관념을 아이들의 ‘미래’는 거뜰히 이겨낼지도 모른다.

글 김잔디_웹진 [비유] 편집자 사진 제공 웹진 [비유]

1 리타 펠스키, <독자>, <페미니즘 이후의 문학>, 도서출판여이연, 2010 2 각주 1번의 책, 50쪽

이 시국에 우리는 왜 연극을 보는가

창작집단 여기에 있다 <SPACE: 연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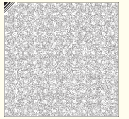


<SPACE: 연극> 공연 모습



<SPACE: 연극>은 우주를 소재로 연극에 관해 이야기한다. 무대 중앙에 있는 장치는 우주선 같기도, 망원경 같기도, 카메라 같기도, 조명 같기도 한데, 공연은 이 장치를 활용하면서 전개된다. 모든 내용은 곧 '연극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로 모인다. 코로나19 시대에 연극의 현실에 관해 톡 터놓고 이야기하는 자리 가 된 셈이다. 배우의 직접적인 발화를 통해, 알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던 것 이상으로 연극하는 이들의 솔직한 심정을 듣게 되었고, 제도 안에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던 그들이 건네는 호소가 몹시 절절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배우가 연극을 사랑하는 마음이 와닿아서 이때 새삼스레 관객으로 자리하던 나 역시 이 장르를 꽤 아끼고 있음을 깨달았다. 배우의 눈물과 벅찬 감정에서 오는 에너지가 전해져서 내가 왜 연극을 보러 다니는지 자연스레 되물게 되었기 때문이다. 등장인물이자 실제인물인 '대진'은 알베르 카뮈의 연설을 통해 진심 어린 호소를 할 뿐만 아니라,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며 누군가를 여러 번 부른다. 예술가들은 여기 존재하는데, 관객들도 그곳에 있느냐고 계속 물으며 확인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응답은 없다. 배우는 계속해서 외로운 줄타기를 이어갈 뿐이다. 배우들이 퇴장하고 무대 위에 관객만이 남아서 <연극이 끝난 후>를 들고 있으면



관객으로 함께 이 사안을 고민해 달라는 제안을 받은 기분을 지울 수 없게 된다.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것 중 하나는 관객참여형 공연이라는 점이다. 배우가 다가와 손가락 인사를 건네면 그것에 응하게 되고, 손을 잡고 함께 무대로 올라가 자리에 앉게 된다. 배우는 관객이 앉은 의자를 무대 위 이곳저곳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등받이를 침대처럼 젖히기도 한다. 이렇듯 단 일곱 명의 사람이 배우와 차례로 교감하고 무대 위로 올라가는 과정을 겪고, 함께 조명을 받으며 호흡하는 건 일반적인 연극 관람에서 흔한 일은 아니다. 당시에는 선뜻 배우가 하자고 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었는데 돌이켜 보면 나는 그 순간을 정말로 즐기고 있었다. 게다가 관객이 단 일곱 명인 공연인 만큼 작은 공동체가 만들어진 기분이 들었다. 처음 만난 이들과 우주선이라는 다소 위험(?)한 공간에 함께 탑승하니 일종의 연대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공연을 관람한 직후에 작품의 제목인 <SPACE: 연극>에서 'Space'가 곧 연극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인간이 광활한, 미지의 우주를 향해 도전하려는 것에 빗대어 이 집단이 연극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품의 도입부로 돌아가 보면 이 공연의 첫 대사는 '상상력'에 관한 이야기였다. 상상력은 우리를 가보지 못한 곳으로 이끌 수 있고, 우리는 상상력 없이는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한다. 상상력은 곧 연극 내지는 예술을 의미하고 우리는 연극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말하는 듯했다. 연극을 통해 나아가게 되는 곳이 'Space'든, 설명 그게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간에 말이다. 그러니 이러한 '상상력'을 함께하자며 관객과 배우의 구분을 허물고 무대라는 공간에서 함께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 것일지도 모른다.

주변의 꽤 많은 사람이 일 년에 한 번도 공연을 보지 않는다고 말하곤 한다. 언젠가 한 공연장 관계자는 미세 먼지가 심해진 세상에서 관객들이 어떻게 해야 공연을 보러 극장을 찾을지 함께 고민해 달라고도 했다. 공공 극장들은 문을 닫고 '랜선 연극'을 송출하는 것이 일상이 돼버린 '언택트' 시대에, '라이브'를 추구하는 공연의 미래에 대한 논의는 이미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에도 존재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SPACE: 연극>은 이 '시국'에도 연극을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면으로 마주한다. 작중 아나운서는 개기일식으로 달이 태양을 가리는 순간 그때서야 비로소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층인 코로나를 볼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평소 보이지 않던 것이 개기일식 절정의 순간에 '보이게' 되는 것이다. 나는 연출의 말대로 '이 시국에 연극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모두를 만족시킬 답은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도 계속해서 함께 질문하고 생각할 때, 연극이 지닌 힘이 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이 고민은 창작자만이 아닌 관객도 함께 해야 하는 것일 테고 말이다.

극장 규모가 작고 오퍼레이터가 객석 가까이 있는 탓에 큐를 재생하는 클릭 소리를 선명히 들을 수 있었다. 이 때 문득 긴밀하게 공연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과, 배우와 관객, 스태프가 자리하고 있는 이 공간 자체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서 이야기한 코로나19 이후의 연극 관람과 연결 지어 본다면 우리가 이 시국에 연극을 보는 이유는 나와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글 임다영.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에 재학 중이며 연극을 비롯한 문화예술을 폭넓게 공부하고 있다.

사진 제공 창작집단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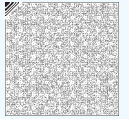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연극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춤:in 춤+여기

“탈춤도 춤이다! 춤 하면 탈춤이다!”

천하제일탈공작소 (이주원+허창렬)



웹진 [춤:in]

Q 당신은 누구입니까?

허창렬 딸바보이자 탈바보, 탈춤 추는 허창렬입니다. 고성오광대 이수자이고, 천하제일탈공작소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어요. 저는 탈춤을 너무나 사랑하고 춤출 때 가장 행복합니다. 탈춤의 자유로움과 관객의 반응을 느낄 때 너무 좋아요.

이주원 하회별신굿탈놀이 이수자이며 탈춤 추는 이주원입니다. 춤추는 것, 노래하는 것, 무대에서 서는 것 모두 좋아합니다.

Q 여기는 어디입니까?

허창렬 여기는 서울남산국악당의 연습실이에요. 내년까지 서울남산국악당의 상주단체로 함께 하게 돼서 이곳에서 주로 연습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작품이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은 저희가 고민하는 주제들을 실험해 보고 만들어나가는 공간이에요. 올해 초에는 안은미 선생님과 함께 움직임 워크숍을 하기도 했고, 탈춤 선생님들을 모셔서 탈춤을 배우기도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시야를 넓혀보자고 해서 함께 현대철학을 공부하고 있죠. 그렇게 몸과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만들며 여러 가지를 실험해 보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공간은 어떤 특정한 공간이라기보다는 계속 춤을춰왔던 공간들의 집합체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거쳐온 모든 공간이 모두 흡수돼 이곳에서 춤을 만들어냈어요. 모든 공간의 조각들이 파편처럼 모여서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낸 거죠.

Q 여기에서 춤은 어떻게 발견되나요?

이주원 이곳에서도 춤을 발견하겠지만, 저는 제 안에서 춤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고고학자가 유물을 발굴할 때 계속 붓으로 털어내면 유물이 선명해지는 것처럼, 춤을 발견하는 작업도 마찬가지로 같아요. 춤을 추면서 어떤 동작이 좋았다면 계속 연습하며 그 동작을 발굴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런 면에서 제가 연습하는 이곳은 발굴의 장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붓을 톱툰 치면서 제 안에 있던 춤을 발굴해 나가는 곳이지요. 저의 머릿속에 항상 붓이 있어요. (웃음)

허창렬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탈춤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워크숍 마지막에 거울을 보면서 탈춤을 함께 했는데, 거울에 비친 그들의 얼굴에서 춤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얼굴에서 발생하는 신명을 바라볼 때 가르치는 보람이 있고, 그로부터 제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껴요. 또 창작공연을 연습할 때는 탈꾼들 서로의 기운과 호흡을 교환하며 춤사위를 만들어가는 데 적합한 공간인 것 같아요. 이곳에서 서로의 춤과 저만의 춤을 새롭게 찾아가고 있죠. 탈춤 공연이 끝날 때마다 관객들과 함께 외치는 말이 있어요. “탈춤도 춤이다! 춤 하면 탈춤이다!”

취재·정리 김연임, 웹진 [춤:in] 편집장

아티스트 소개 천하제일탈공작소는 탈춤의 원리와 정신을 기반으로 동시대의 관객과 함께 어울리는 공연을 만들고 있는 젊은 탈춤꾼들의 예술단체이다. 전통 탈춤의 예술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여러 지역의 탈, 움직임, 음악, 언어를 확장하고 현대사의 이야기와 함께 지속적인 창작 활동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다.

※본 원고는 지면 관계상 편집되었습니다. 원문은 웹진 [춤:i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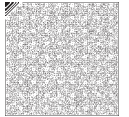
09

SFAC 문화예술공간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금천예술공장
- 남산예술센터
- 대학로연습실
- 문래예술공장
- 삼일로창고극장
- 서교예술실험센터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예술치유허브
- 시민청 | 삼각산시민청
- 신당창작아케이드
- 연희문화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청년예술청

- SFAC 행사·축제·예술교육·지원 및 협력
- 기타 문화행사

Mon	Tue	Wed
	1	2
7	8 ● 남산예술센터 2020 시즌 프로그램 <남산예술센터 대부흥성회>(~9.13) ● 9월 온섬포 콘서트 <사이먼 도미닉 & 카더가든>	9 ● SAC ON SCREEN 전시 <시크릿 뮤지엄> ● 연극 <브릴리언트: 찬란하게 빛나던>(~9.20) ● 뮤지컬 <캣츠>(~11.8)
14	15 ● 인디음악 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서울라이브> 선정 공연 <Round & Round 3인3색 중추가무> @생기스튜디오 ●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초청 특별 연주회 <3개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16 ● 제5회 마포 M 클래식 축제(~9.26) ※미디어·온라인중계 및 일부 오프라인 공연 진행
21 ● 2020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선정작 <이철진의 월요 승무이야기>	22 ● 서초문화재단 반포심산아트홀 <화요콘서트> 하이든 교향곡 시리즈(~11.17)	23 ● 한-우크라이나 현대 사진전 <관점>(~9.23) ● 연극 <그을린 사랑>(~9.27)
28	29 ● 전시 <최충웅: 우리 눈으로 조각하다>(~9.29)	30  ● 전시 <넌지: 시간과 불꽃>(~9.30) ● 2020 한국색동박물관 기획전 <아름다운 한국 전통 색동 이불과 베갯모>(~9.30)



Thu	Fri	Sat	Sun
3 ● 해설이 있는 오페라 <마술피리>	4 ● 연극 <나는 형제들에게 전화를 거네> (~9.6)	5 ● <Ping-Pong: 텍스트와 이미지 주고받기> 워크숍(~9.6) ● 전시 <시간동사모음>(~9.5) ● 서울시청소년국악단 제55회 정기연주회 <세상의 모든 사랑가>	6 ● 인디음악 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서울라이브> 선정 공연 <평.평.평-대신 올어드립니다> @작은물 ● 뮤지컬 <난설>(~9.6)
10 ● 2020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선정작 연극 <작가를 찾는 6인의 등장인물>(~9.20) ● 창작 뮤지컬 <백범>(~10.4)	11 ● 전시 <행복의 기호들: 디자인과 일상의 탄생>(~11.15) ● 전시 <BLUE RAINBOW>(~9.11) ● 연극 <플레이 워드 햄릿>(~9.20) ● 뮤지컬 <컬러스 오브 러브>(~9.27) ● 뮤지컬 <나, 해석>(~9.27)	12 ● <2020 서커스 카라반>(~10.4) ● <2020 앙상블 콘서트Ⅲ 하모니카 판타지 Harmonica Fantasy>	13 ● 2020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선정작 연극 <여름은 덥고 겨울은 길다>(~9.13) ● 전시 <우리가 함께한 순간들>(~9.13) ● 전시 <르네 마그리트 특별전>(~9.13)
17 ● 연극 <살았지만 살아진다>(~9.19) ● 연극 <JUNGLE>(~9.27)	18 ● <서울거리예술축제 2020>(~10.4) ● 2020 유망예술지원사업 MAP 선정작 이현주 <Improvisation 2> @오디오가이 ● 2020 유망예술지원사업 NEWStage 선정작 김연재 <상형문자무늬 모자를 쓴 머리들>(~9.27)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	19 ● 인디음악 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서울라이브> 선정 공연 <MAD: More And Dare> @채널1969 <사운드스케이프 Vol.3> @클럽 롤링스톤즈 <DOWNFALL FEST 2020> @프리즘홀 ● 전시 <나 자신의 노래>(~9.19) ● 연극 <히스토리 보이즈>(~11.8)	20 ● 전시 <한국, 스페인 수교 70주년 기념 특별전: 에바 알머슨 'Vida'>(~9.20) ● 뮤지컬 <개와 고양이의 시간>(~9.20)
24 ● 뮤지컬 <조선 삼총사>(~9.26)	25 ● 바스락콘서트 @시민청 바스락홀	26 ● 2020 유망예술지원사업 dot 선정작 주희 <군무 리서치 프로젝트>(~9.27) ● 2020 유망예술지원사업 MAP 선정작 박승순 <NEUROSCAPE V2: XYZ>(~9.27) ● 무용 정보경 <다가오는 것들> & 류장현 <산양의 노래>(~9.27)	27 ● 인디음악 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서울라이브> 선정 공연 <Mangrove Living Room Live> @맹그로브 <서울 광주 부산 교류전> @채널1969 ● 전시 <오민: 초청자, 참석자, 부재자>(~9.27) ● 전시 <Open the doors to art collecting>(~9.27) ● 전시 <하산 하자스: A Taste of Things to Come>(~9.27) ● 전시 <Living in Art>(~9.27) ● 전시 <명상(mindfulness)>(~9.27) ● 뮤지컬 <광염소나타 2020>(~9.27)

※이번 호에 실린 공연·행사 등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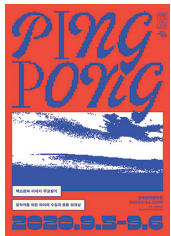


남산예술센터 2020 시즌 프로그램

〈남산예술센터 대부흥성회〉

〈남산예술센터 대부흥성회〉는 교회의 예배를 퍼포먼스화한 작품이다. 한국 기독교의 보수화와 소수자 혐오를 짚어보고, 기독교와 남산예술센터의 기형적인 성장 과정을 풀어내어 '시민사회의 공론장으로 자처하던 공공극장과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며 성장해야 하는지'를 질문한다.

일시 9월 8일(화)~13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 주말 오후 3시
※ 추후 안내 예정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멘센터
관람료 전석 3만 원(만 13세 이상)
문의 02-758-2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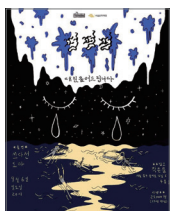


〈Ping-pong: 텍스트와 이미지 주고받기〉워크숍

'스튜디오 풀옵션'은 웹진에서의 'P!ng' 프로젝트 연재와 동시에 오프라인 확장형 프로그램인 〈Ping-pong: 텍스트와 이미지 주고받기〉 워크숍을 연희문화창작촌에서 진행한다.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은 언제나 예술 창작에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를 보다 능동적으로 처리하도록 돕는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Python)을 이해하고 직접 실습한다.

일시 9월 5일(토)~6일(일)
장소 연희문화창작촌 미디어랩
관람료 무료(접수 마감)
문의 studiofulloption@gmail.com



인디음악 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서울라이브〉선정 공연

〈평.평.평-대신 올어드립니다〉

2020 〈서울라이브〉에 선정된 공연으로, 도마와 쓰다선이 출연한다.

일시 9월 6일(일) 오후 8시
장소 작은물
관람료 전석 2만 5천 원(25명 한정)
문의 xeuda.sun@gmail.com



SAC ON SCREEN 전시 〈시크릿 뮤지엄〉

소월아트홀에서 공연, 전시를 스크린으로 경험한다. 예술의전당에서 진행되는 우수 공연, 전시 콘텐츠를 영상으로 온 국민이 함께 보고 즐기는 프로젝트다.

일시 9월 9일(수) 오후 7시
장소 소월아트홀
관람료 전석 무료(전체 관람)
문의 02-2204-6412 | www.sdfac.or.kr
※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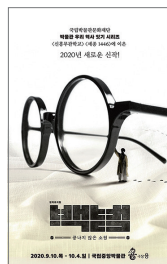


2020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선정작

연극 〈작가를 찾는 6인의 등장인물〉

공동체의 조직 곳곳에 기록돼 규정되는 현실의 나는 진정한 나라고 말할 수 있는가? 분명히 실존하는 나에 대한 기록이지만, 그 기록에 의지해 판단된 나는 과연 진실인가? 관객에게 질문을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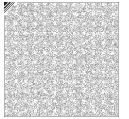
일시 9월 10일(목)~20일(일)
평일 오후 8시 | 주말 오후 3시(월 공연 없음)
장소 한양레퍼토리 씨어터
관람료 전석 3만 원(만 13세 이상)
문의 070-7869-2089



창작 뮤지컬 〈백범〉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박물관 우리 역사 잇기 시리즈 〈신흥무관학교〉 〈세종 1446〉에 이은 신작이다. 출연진 모두가 백범이 되는 설정으로 출발, 18명의 배우가 모두 백범이 돼 영웅 김구가 아닌 인간 백범의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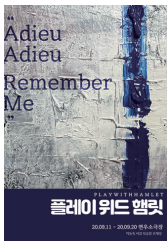
일시 9월 10일(목)~10월 4일(일)
화·수·금 오후 8시
목·주말·공휴일 오후 2시(월 공연 없음)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관람료 VIP석 9만 9천 원, R석 7만 7천 원
S석 5만 5천 원, A석 3만 3천 원
문의 1544-5955



전시 <행복의 기호들: 디자인과 일상의 탄생>

코로나19 이전 우리의 일상은 어떠했을까?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온 평범했던 일상을 행위로 분해해 보여주는 디자인 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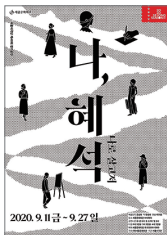
일시 9월 11일(금)~11월 15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
(금·토 오전 10시~오후 8시, 매주 월 휴관)
장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배움터 2층 DDP디자인뮤지엄
관람료 무료(전체관람가)
문의 02-2153-0084 | www.ddp.or.kr



연극 <플레이 워드 햄릿>

연우무대의 16번째 특별기획공연으로, '판소리 햄릿 프로젝트' '햄릿, 혼잣말' 등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자신만의 색깔로 풀어낸 극단 플레이 워드(박선희 연출)와의 공동 작업을 통해 만들어졌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예술지원 연극 분야에 선정된 작품이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으로 9월 16일 오후 8시 네이버TV를 통해 공연 실황을 생중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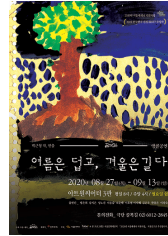
일시 9월 11일(금)~20일(일)
월·수·목·금 오후 8시 | 주말 오후 6시(화 공연 없음)
장소 연우소극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2-744-7090



뮤지컬 <나, 혜석>

<나, 혜석>은 일제강점기 신여성상을 대표하는 인물인 나혜석(1896~1948)의 이야기를 그렸다. 그녀는 조선 여성 최초의 미술 유학, 유럽 일주, 개인 전람회 등 '조선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로 회자되는 인물이다. 한 명의 예술가로서, 한 명의 주체적 인간으로서 나혜석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일시 9월 11일(금)~27일(일)
화~금 오후 8시 | 토 오후 3시·7시
일 오후 3시(월 공연 없음)
장소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문의 02-399-1000



2020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선정작

연극 <어름은 덩굴 겨울은 길다>

이 시대의 대중에게 가족의 의미를 통한 소통의 본질과 삶의 현주소를 질문한다. 초연 당시 매회 매진을 기록하며 특별공연을 추가 구성할 만큼 관객과 평단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바 있다. 극단 골목길의 대표 우수 레퍼토리로 2020년 서울메세나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일시 ~9월 13일(일)
평일 오후 8시 | 주말 오후 4시(월 공연 없음)
장소 아트원씨어터 3관
관람료 전석 3만 원(만 14세 이상)
문의 02-6012-2845



2020 유망예술지원사업 MAP 선정작

이현주 <Improvisation 2>

리듬 및 장단을 넘어 선율과 가락 중심으로 한국과 서양음악의 공통점을 찾아보고자 시작된 Improvisation. 작곡가 이현주가 참여하는 밴드 구성으로 즉흥의 신선함을 보인다.

일시 9월 18일(금) 오후 7시
장소 오디오가이
관람료 무료(전석 초대)
문의 010-7485-2777 | hjj111@naver.com
www.youtube.com/user/fammusic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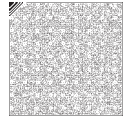


2020 유망예술지원사업 NEWStage 선정작

김연재 <상형문자무늬 모자를 쓴 머리들>

노르웨이에서 인공 부화된 흰머리쇠기러기가 흑산도에 도착한 날, 철새 연구원이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그와 생일이 같은 사람들은 동시에 이명을 듣는다. 하수구공은 어느 날 밤 목격한 거대한 흰 새를 찾아 하수구를 파내려가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것들이 하수구 안에서 긴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

일시 9월 18일(금)~27일(일)
화~금 오후 7시 30분 | 주말 오후 3시
장소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15세 이상)
문의 02-766-6925
cafe.daum.net/dongplay(극단 동)



전시 <한국, 스페인 수교 70주년 기념 특별전:>

에바 알머슨 'Vida'

'행복을 그리는 화가'라는 수식어가 익숙한 '에바 알머슨'의 두 번째 전시의 주제는 바로 '인생 (vida)'이다. '영감' '삶의 조각' '가족어사전' '내 마음이 말할 때' 등 10개의 방으로 관람객을 초대한다. 유화·미디어·설치·드로잉 등 작가의 인생이 담긴 작품 150여 점으로 구성된다.

일시 ~9월 20일(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관람료 성인 1만 5천 원, 청소년 1만 1천 원, 어린이 9천 원
문의 02-332-8011



2020 서울메세나 지원사업 선정작

<이철진의 월요 승무이야기>

"전통춤 승무의 전승."

14년째 지속되는 승무의 장기 공연을 기념하는 유일한 전통춤 장기 공연 프로젝트다. 전통춤의 아름다움을 계승하고 공연예술계의 메카인 대학로에서 레퍼토리화를 통해 관객에게 승무의 정수를 맛보게 한다.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12월 31일)
장소 성균소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전체관람가)
주관 (사)한국춤예술센터
후원 제이투에스테크놀로지, 서울문화재단
문의 02-747-5035



서초문화재단 반포심산아트홀 <화요콘서트>

하이든 교향곡 전곡 시리즈 I

아시아 최초로 시도되는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 탄생 300주년을 기념한 전곡 시리즈 <하이든 300 프로젝트>다. 9~11월에 걸쳐 하이든 교향곡 1번~8번이 전곡으로 연주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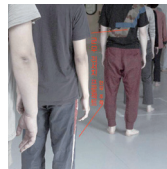
일시 9월 22일, 10월 20일, 11월 17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심산문화센터 반포심산아트홀
관람료 전석 7천 원(8세 이상 관람가)
문의 02-3477-2805 | www.seochocf.or.kr



연극 <그을린 사랑>

신유청 연출로 2020년 백상예술대상에서 '백상연극상'을 받아 화제가 된 연극 <그을린 사랑>이 LG아트센터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이 연극은 희곡 <화염(Incendies)>을 원작으로 하며, 동명의 영화로도 국내에 잘 알려진 작품이다.

일시 9월 23일(수)~27일(일)
수~금 오후 7시 30분 | 토 오후 1시 30분·7시 | 일 오후 3시
장소 LG아트센터
관람료 R석 6만 5천 원, S석 4만 5천 원
문의 02-2005-0114



2020 유망예술지원사업 dot 선정작

주희 <군무 리서치 프로젝트>

무용의 가장 보편적인 형식 중 하나인 '군무'의 정형화된 개념을 해체, 재구성한다. 단체와 개인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함께 춤추는 이상적인 형태의 군무를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하면서, 군무의 형식을 긍정하면서도 무용수 개인의 빛나는 순간이 한 공간에 공존하는 줄타기를 해보고자 한다.

일시 9월 26일(토)~27일(일)
장소 나문시어터
관람료 유료(미정)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
(무관중 사전 촬영 및 온라인 업로드 예정)
문의 010-9256-6375 | juhui5920@naver.com



2020 유망예술지원사업 MAP 선정작

박승순 <NEUROSCAPE V2: XYZ>

AI 사운드스케이프 시스템 뉴로스케이프가 홀볼트의 관점을 토대로, 사라져가는 소리를 복구하는 기계 지능의 역할을 하며 인간과 공존하는 상상을 한다. 다양한 풍경 사운드, 이미지, 텍스트를 작품의 주요 재료로 설정해 음향적 운동성, 문화적 맥락 등을 신체, 언어, 음악 등을 통해 엮어낸다.

일시 9월 26일(토)~27일(일)
장소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관람료 무료
문의 phonicspark@gmail.com
www.seungsoonpark.com



2020 서울 서커스 페스티벌
서커스 카바레

10. 9.(금)~11.(일)
문화비축기지



CIRCUS CABARET

※추후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 변화에 따라 프로그램 및 일정을 변동할 수 있습니다.

협력 문화비축기지

2020 서커스 시즌프로그램 서커스 카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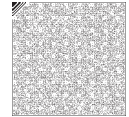
CIRCUS CARAVAN

9. 12.(토) ~ 10. 4.(일) 매주 주말 및 공휴일
문화비축기지 등

※추후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 변화에 따라 프로그램 및 일정을 변동할 수 있습니다.

협력 문화비축기지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웹진 [문화+서울] www.sfac.or.kr/magazine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8월호 독자 의견
[문화+서울]은 독자에게 많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독자들에게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을 1년 동안 보내드립니다.

1. 이따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To. 편찬의 힘
COVID-19로 순환계가 우울합니다. 그중에서도 2020. 08 만드신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저의 기분 탓인지 08의 표지작품 사진부터 오묘한 BLUE의 느낌이
요즘의 분위기와 어울립니다. melancholy 라고 할까요.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이번 08의 전체적 분위기가 좀 가라앉은 느낌입니다. Blue 네요.
좀 더 밝은 contents가 있었으면 합니다.

- 항상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COVID-19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다음 호를 기대합니다.

* [문화+서울]은 www.sfac.or.kr/magazine으로도 발행하며 종이 입지는 주요 배포처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엽서

김세진 님(경기도 안산시)

편집실 귀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우울합니다.

그런 중에도 2020년 8월호 만드신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의 기분 탓인지 8월호 표지 작품 사진부터 오묘한 블루(BLUE)의 느낌이
요즘의 분위기와 어울립니다. 멜랑콜리라고 할까요...

이번 8월호의 전체 분위기가 좀 가라앉은 느낌입니다. 블루(BLUE)네요.

좀 더 밝은 콘텐츠가 있었으면 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다음 호를 기대합니다.

편집 후기

태풍 바비가 무사히 지나가길...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장

코로나19 때문에 책 페이지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라는
문구를 넣고 있다. 이젠 책도 감염시키는구나.

전주호 서울문화재단 홍보IT팀

더위와 코로나19는 가지 않고 태풍은 오고, 혼돈 속에 마감합니다.

전민정 객원 편집위원

자연의 무서움을 절감하는 2020년.

최악이라는 단어는 결코 꺼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이아림 객원 기자

길고 긴 장마 같았던 것들.

그새 훌쩍 다가온 가을 앞에 모두 무탈하시길.

전은정 객원 기자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금천예술공장, 남산예술센터, 대학로
연습실, 두산아트센터, 문래예술공장, 백성회장민호극장, 백암아트홀,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
협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치유허브, 시민청,
신당창작아카데미,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예술가의 집, 잠실창작스튜디오, 정동극장,
중랑아트갤러리, 하자센터, 한국공예예술센터, 한전아트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증상이 없어도 의심될 땐?

코로나19 무료 선제검사 신청

왜?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 차단

누구를?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서울시민

어디서? 서울의료원 등 서울시립병원 8곳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매주 월요일 선착순 신청

※ 고위험집단·시설도 선제검사 예정

다중이용시설은 QR코드로 입장!

[전자출입명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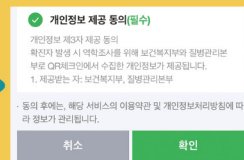
민간시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등

공공시설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 시설별로 의무·권고 등 차이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해제 시부터 적용

방법

스마트폰으로 네이버에서 'QR체크인' 검색·접속 → 정보제공 동의 후
최초 휴대폰 인증 → 생성된 1회용 QR코드를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확인



서울의 백신은 언제나 시민입니다

☎ 문의 02-120 / seoul.go.kr